

OLP JOURNAL

Opinion Leaders Program 저널 January 2012 VOL.13



발간사

OLP 14기 이덕수 회장 (사진)

커버스토리

오피니언리더들, 변혁의 시대를 말한다

OLP Special

조찬강연

송년 모임

골프 대회

등반 대회

회원들의 에세이

사무총장을 마치며

OLP를 말한다

앞선 생각으로 패션유통을 이끄는 기업 대한민국에는 마리오 아울렛이 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패션·유통의 선진화를 꿈꾸며 30여 년, 흔들리지 않는 정도경영으로 한 길만을 지켜온 마리오아울렛.
남다른 감각과 경영노하우로 대한민국 패션·유통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기업, 내일을 바꾸는 기업 - 마리오아울렛은 늘 한발 앞서나갑니다



'마리어3'의 이미지는 향후 건설예정인 조감도입니다.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여섯 번째 이야기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 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국민 여러분이 주신 사랑 모아서 더 큰 사랑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새해에도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더 큰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KB국민은행, 국내 은행 최초
국가고객만족도 6년 연속 1위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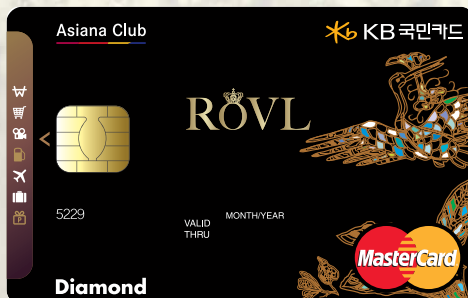
 국가고객만족도(NCSI)
6년 연속 1위



ROYL

Royal Valued Leader [로블]

당신의 인생을
프리미엄에 올려놓다



프리미엄 카드, 라이프스타일을 드높이다 ROYL아시아나카드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결제금액 1,000원당 최대 2마일 적립
- 쇼핑, 항공, 여행, 레저 등 고품격 서비스 선택 제공 스페셜 서비스 A와 B 각각 한 개씩 선택 가능(연 1회)

스페셜 서비스 A(택1)	30만원 상당 쇼핑 바우처 제공 / 주중 2인 그린피 지원 / 국내외 동반자 1인 무료 항공권 제공 / 해외항공 본인 좌석 승급권 제공 / 국내의 여행 할인서비스
스페셜 서비스 B(택1)	프리미엄 영화 관람권 / 워터파크 입장교환권

- 각종 여가 및 일상생활 관련 편의 서비스 발레파킹 서비스, 인천공항 VIP라운지 무료 이용 등

* 상기 서비스는 KB국민카드 및 제휴업체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를 참조하시거나 KB국민 최우수 고객센터(1577-4300)로 문의바랍니다

Creative Rich!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금융을 안다. 당신은 숫자를 안다

당신은 숫자 뒤의 이야기를 읽고, 그 변화와 방향을 예측한다
세상의 룰을 알되 그 룰에 갇히지 않는 통찰력을 가진 당신 -
크리에이티브 리치, 당신에게 천편일률적인 답은 의미가 없다

삼성증권이 창조적인 당신을 위해 더 앞서갈 것이다
자산관리의 새롭고 강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Creative Rich를 위한 앞선 자산 관리 -

POP | HONORS CLUB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create with you

삼성증권

SAMSUNG



발행인 김병희 / 발행처 사단법인 OLC(Opinion Leaders Club)
 발행일 2012년 1월 18일 / 통권 제13호 / 등록번호 서울 사 01993
 편집장 김상민 / 고문 정세용 · 이세정 · 이익준 / 편집위원 황제성 · 김광기 ·
 이용택 · 조영훈 · 김홍익 · 민병오 · 배국인 · 송진흙 · 송영웅 · 김태균 · 이명희
 OLC사무국 02-877-0789
 기획/제작 (주)성우애드컴(www.swadcom.co.kr) 02-890-0900

OLP JOURNAL

Opinion Leadership Program

* 'OLP(Opinion Leaders Program)'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기업체 간부와 전문직 중견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제, 경영전문과정입니다.

* <OLP JOURNAL>은 'OLP' 교육을 수료한 멤버들이 경제, 경영 현안을 중심으로 기업인과 언론인들의 상호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작하는 저널입니다.

010 발간사 높은 생각을 갖자 _ 이덕수

012 신년사 올해 OLC의 키워드는 '화합'과 '소통' _ 김병희

커버스토리 오피니언리더들, 변혁의 시대를 말한다

016 시장경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_ 남성일

018 2012 정치 지형과 한반도 _ 이익준

020 청년실업과 빈부격차 해소책은 _ 이익준

022 변혁의 시대에 바람직한 공직자상 _ 이홍재

024 규제강화보다 경영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_ 이철행

027 금융산업의 경영환경 _ 김홍익

OLP 스페셜

032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초청 OLC 경제언론인회

초찬강연 _ 정세용

034 2011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_ 김필수

038 OLC 골프대회 _ 이용웅

042 주왕산에서 산행의 진수를 맛보다 _ 김상민

OLP에세이

046 전업 5계(戒) _ 이완수

048 골프-유머도 즐기며 칩시다 _ 김범호

050 아시안하이웨이 _ 김상민

054 나는 가수다 _ 유복환

055 OLC사무총장을 마치며... _ 이민성

OLC News

OLP를 말한다

OLP 15기 구도호 수석부회장

OLP 15기 유영석 간사장

당신의 인생이 비를 만났을 때, 삼성생명이 우산이 되어드립니다

인생의 어느 날, 거센 비가 올 때
우산이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준비합니다.
맑은 날 우산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비 올 때 든든한 우산을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험은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삼성생명

사랑
하니까
걱정
하곤
사랑
하니까
준비
한다



상담문의
www.samsunglife.com
1588-3114

보험은 사랑입니다



삼성생명

SAMSUNG

높은 생각을 갖자



글 _ 이덕수 (주)타임즈코어 회장
(OLP 14기 회장)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함에 있어 생각은 우리를 움직이는 운전대가 됩니다.

생각은 우리의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기쁨, 사랑, 행복, 건강, 성공과 실패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베임스 앨런은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통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각이 없다면 행동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며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생각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태도를 결정하고 성격을 형성하게 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갑니다. 악(惡)의 생각이 아닌 선(善)의 생각을

우리 모두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와 은혜, 배려와 이해가 가득한 수준 높은 생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와 은혜, 배려와 이해가 가득한 수준 높은 생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Understand

‘이해하다’를 뜻하는 영어단어 Understand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의 밑(Under)에 서야(stand)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Understand)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한자성어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와 역지사지도 높은 수준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OLP 과정이라는 좋은 생각으로의 만남을 이제는 수준 높은 생각을 통해 다양한 소통이 이뤄지며 서로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OLC로 더욱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LP 과정을 만나게 됐고, 이제는 총동문회 OLC를 통해 귀한 동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문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과 수준 높은 생각을 함께 나누어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OLC원우님들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LP**

올해 OLC의 키워드는 ‘화합’과 ‘소통’



글 _ 김병희 OLP 4대 회장
(주)희성&H 회장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서강대 OLC(Opinion Leaders Club) 동문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이기에 모든 사람이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욱 비장해야 할 것입니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 변수가 전면부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OLC의 키워드는 ‘화합’과 ‘소통’

어렵기에 주위를 돌아보고, 서로 뭉치고, 도와야 합니다. OLP라는 끈으로 묶여서 OLC로 발전한 우리 동문들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OLC(Opinion Leaders Club ; OLP를 이수한 동문들의 친목모임) 제4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미 ‘화합’과 ‘소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는 심정적인 일체감도 중요합니다. 험난한 한 해가 예고된 탓인지 올해 우리 사회의 화두도 ‘위로’와 ‘배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축하 전화 한 통만으로도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만인이 함께 하면 현실이 된다”는 말도 언급했습니다.

OLC는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최고 인재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서로 뭉쳐 하나가 되면 무엇이 일어 없습니다. 함께 멀리 갈 수 있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합시다. 저는 신임회장으로서 모든 동문들이 기수를 떠나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방관을 참여로, 소원함을 따뜻함으로 바꾸겠습니다. 거창하지 않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OLC 홈페이지를 개편해 언제 어디서든 동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경제·경영정보와 각종 생활정보, 강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동문들의 애정과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골프모임과 등산모임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동문들이 친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등산모임의 경우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은 지방의 유명한 산을 섭외해 회원들이 살을 부비며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로’와 ‘배려’로 하나 되자!

동문 여러분!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는 심정적인 일체감도 중요합니다. 험난한 한 해가 예고된 탓인지 올해 우리 사회의 화두도 ‘위로’와 ‘배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축하 전화 한 통만으로도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동문들이 옆에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써 가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진년 새해에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동문 여러분 개개인도 늘 건강하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OLP



Team Building

글로벌 건설 수주전 제패를 위해
세계의 건설인재들이 삼성건설에서 한 팀이 되었습니다

Denis Leff (Czech)
통합설계 및 예측설계 전문가

양종호 (South Korea)
도로/철도 구조 전문가

계명성 (Taiwan)
주택 해외영업 전문가

Nema (India)
주택 해외영업 전문가

Scottclark Andrew (UK)
해외 플랜트 안전관리 전문가

Murphy Christopher (UK)
국제 법무 전문가

양희종 (South Korea)
플랜트 기계/배관 엔지니어링 전문가

정삼룡 (South Korea)
기술전략 전문가

Ahmad Abdelrazaq (USA)
초고층건축 기술 전문가

김경준 (South Korea)
건축기술 전문가

Caderon Angeellene Grace (Philippine)
통합설계 및 예측설계 전문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수주전,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팀의 실력에 달려있습니다. 삼성건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의 건설인재들과 함께, 조직력을 갖춰가며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설로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히 세우고,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낭보를 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SAMSUNG

삼성물산 건설부문

OLP COVER Story



시장경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2012년 정치지형과 한반도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OLP 3기)

청년실업과 빈부격차 해소책은

송진흙 동아일보 차장(OLP 11기)

변혁의 시대에 바람직한 공직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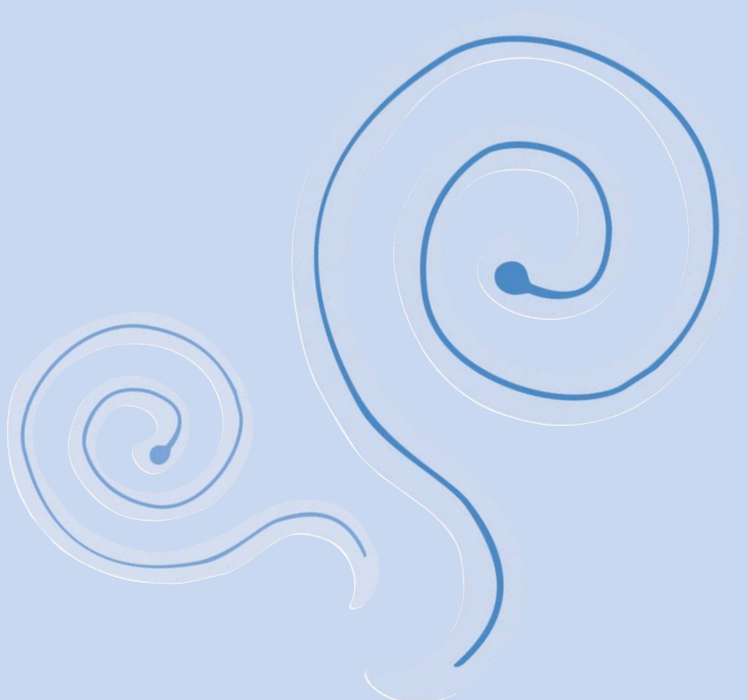
이홍재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OLP 7기)

규제강화보다 경영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OLP 10기)

금융산업의 경영환경

김홍익 신한은행 국민연금강남지점장(OLP 8기)



시장경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글 _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OLP 주임교수)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경제와 경제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기가 벌어지자 우선 경제학자들이 쏟아지는 여론의 못매를 맞아야 했다. 도대체 어쩌면 그렇게 위기가 오는 것을 몰랐느냐는 것이다. 명색이 경제학자라면 일반 투자자보다 조금은 일찍 위험을 감지하고 알렸어야 할 터인데 예측능력은 일반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못했다는 비아냥도 듣는다.

위기의 파장이 수그러들면서 비판은 점차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옮겨갔다. 가장 흔하게 듣는 비판은 시장은 절대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데 자유주의자들의 교언에 빠진 정부가 규제의 끈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 죽은 줄 알았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도 생기를 얻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어쩔 수 없이 표출된 당연한 귀결이며 이로써 시장경제는 몰락하게 된다는 신호라는 얘기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대로 당황하는 가운데 현상을 분석하기에 바쁘다. 시장기능에 여전히 신뢰를 갖는 경제학자 중 일부는 불안정한 정보와 이를 이용한 금융시장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꼽는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대학의 라잔교수는 원인을 보다 과거로 돌려 미국 내 소득격차 확대 및 이에 대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대응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꼽는다.

이런 가운데 각국에서는 경기 사이클과 관계없이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점증하는 불만은 급기야 대규모 시위사태를 불러왔다.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street)’는 구호가, 유럽에서는 ‘보조금이나 일자리를 달라’는 구호가 시위대를 이끌고 있다.

적어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어왔던 시장경제가 신뢰를 잃고 있다. 시장경제는 신뢰를 잃고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통해 거듭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인

로 개입하는 케인즈주의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또 선명한 제목에 비해 내용은 모호한 자본주의 4.0이라는 대안도 등장한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 미덕을 강조하는 마이클 샌델의 주장을 담은 책은 유독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본질을 알아야 문제점도 알 수 있는 법. 시장경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경제란 무엇을 만들고, 얼마만큼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획경제(또는 통제경제)에서는 정부 같은 중앙기구가 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 반면 시장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거나 파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고 이는 신호가 되어 자원이 그쪽으로 몰려들게 한다. 시장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낸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므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장경제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개인에게 자유를 주며 사회 공동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명제는 매력적이다.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가치를 다 같이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장경제는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안겨준다. 현실과 괴리되는 이유는 시장경제에서 전제하는 가정들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독립적,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이 문제다. 가정과 달리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휩쓸려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수요가 과다하다가 어떤 때는 공급이 턱없이 과다해지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가격 또한 충분히 신축적이지 못하여 한번 불균형이 생기면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교정 장치가 필요하며 정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케인즈 경제학은 바로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시 득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1940~70년대로 돌아갈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정부개입 강화 주장은 정부가 민간보다는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역사는 그 또한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은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 상시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예로 남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위기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과 칸막이식 시장규제로 경제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였다.

결국 개인 또는 기업 등 민간주체 못지않게 정부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보에 있어서도 불완전하고 행동 또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이제까지 문명이 인간의 자유를 넓히는 쪽으로 움직여온 이상 선택의 자유를 기조로 하는 시장경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화의 방향은 시장경제의 덕목인 선택의 자유를 가급적 존중하면서 공동체적 가치(그것이 무엇이건 간에)를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동체적 가치 달성을 위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경제의 변화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험을 살펴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 우선 경제 안정화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대형위기들을 보면 한결 같이 금융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불균형이 결국 위기를 확대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시장에 비해 자본시장은 이동성이 빠르므로 작은 불균형이 급속하게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시장보다는 더 세심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소득 균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된 나라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학 연구들은 개인간의 소득격차의 70% 정도는 인적자본의 격차에서 온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은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비롯한 인적자본 또한 균등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득 균등화가 공동체적 가치라면 인적자본투자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교육복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OLP

2012년 정치지형과 한반도

글 _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OLP 3기)



흑룡이 승천하는 임진년을 맞아 정치권에 메가톤급 태풍이 불고 있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파 간 이합집산과 정치권 물갈이, 쇄신과 개혁바람이 급류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과 20대의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등장으로 불안정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먼저 선거 지형을 보자.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4월 총선 고지를 향해 대혈전을 벌이고 있다. 총선에서 이겨야 대선 고지 점령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총선 승리=대선 승리' 등식이 제기되고 있지만, 견제와 균형성향이 뚜렷한 민심을 감안하면 총선과 대선 이 어긋나는 시계추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총선의 승부는 지역구 의석의 절반에 가까운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부산과 경남, 충청권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수도권은 반(反)한나라당 정서가 강하다는 점에서 야당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야권성향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도 여권엔 큰 부담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온 결과를 서울지역에 대입할 경우 한나라당이 강남권 벨트 등 7곳, 민주당이 40곳에서 우세했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아킬레스건이다. 재보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잇따른 패배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 스캔들까지 겹쳐 수도권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패닉 상태에 있다. 서울의 모 한나라당 의원은 "폼나게 불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한나라당으로선 최후의 소방수로 추대된 박 위원장이 얼마나 민심에 와 닿는 쇄신과 개혁카드를 내놓느냐가 참패를 벗어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박 위원장이 한나라당을 쇄신시켜 제1당을 사수하거나, 최소한 '선거의 여왕'답게 박근혜 파위를 보여준다면 대선으로 가는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다름 참룡들인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 지사, 이재오 의원도 총선에서 일정 역할을 통해 박근혜 대항마로 자리매김하는데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민주통합당을 출범시킨 것을 내세워 선거 주도

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부산지역 출마를 통해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제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가 총선에서 생환한다면 손 전 대표와 대권 경쟁에서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일 것이다.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느냐는 선거판도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다. 안철수 신당이 현실화한다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시민단체 등 제3지대에서 합류하려는 인사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대선은 야권에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가 부동의 상수인 반면, 야권은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선구도가 한나라당 후보보다는 야권 후보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권 후보는 불황과 소통 부재, 친인척의 부패스캔들에 휩싸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2008년 전당대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당시 당 대표 당선)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이 고승덕 의원에 의해 알려지면서 한나라당은 과거 차떼기당의 망령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안 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선 뒤지지만, 다자대결 지지도 조사에선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로선 개인적 인기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를 얼마나 밟고 가느냐에 따라 불리한 선거구도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이다.

야권은 문 이사장과 손 전 대표, 안 원장 등 3룡이 경합할 전망이다.

안 원장이 출사표를 던져 야권후보로 확정되고, 박 위원장과 본선대결을 벌인다면 최고의 빅카드가 될 것이다. 현재론 안 원장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 박 위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앞서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무기.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젊은 층의 반한나라당 성향과 40대의 중도진보성향으로의 선회도 그에게 유리한 선거구도가 되고 있다.

문 이사장과 손 전 대표가 야권 통합후보가 될 경우 현재론 박 위원장이 유리하다. 하지만 야권이 좌파진영까지 한 우산에 묶어둘 경우 예측불허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의 교체를 갈망하는 저변의 심리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안 원장이 출마를 포기하고, 이들 중 한 사람의 손을 들어

줄 경우도 박 위원장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친노적자인 김두관 경남지사도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다.

눈을 한반도로 돌리면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서둘러 마무리한 북한 변수가 남북관계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흔들리면 한반도의 긴장관계도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리더십이 올해 모두 교체되는 것도 남북관계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일단 김정은 체제의 조기안착을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사망 후 이명박 대통령이 핫라인을 통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통화를 시도했다가 불발로 끝난 것이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에 편중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은의 북한체제를 맞아 대북정책을 전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 정부는 김정일 사망 당시 북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희호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조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일정부분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조짐을 보인 것. 하지만 북한이 남한주민의 조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남북 대치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정은이 남한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양자 대화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김정은의 등장과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균형감각과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이 긴요해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친화를 추구하는 연미중화(聯美中和) 전략이 한반도 위기관리 국면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는 현명한 정책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로선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올라선 셈이다. **OLP**

사회복지 담론 -

청년실업과 빈부격차 해소책은

글 _ 송진흙 동아일보 차장(OLP 11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를 담 당하던 2004년 7월 '청백전(청년 백수 전성시대)'이라는 표현을 기자로서는 처음 썼다.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자료를 기초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지적한 기사(동아일보 2004년 7월 21일 자)에 이 표현이 나온다.

그로부터 7년 반이 지났지만 청년실업은 나아진 게 없다. 주변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번듯한 직장엔 취업한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다. 인턴사원이나 비정규직으로 몇 년 근무한 뒤에도 정규직에 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청년 실업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우선 직장에서 번 봉급으로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청년층이 무일푼 실업자로 전락하면 돈이 돌지 않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노인 복지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청년실업자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돼서 집단행동을 하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 현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일자리 정책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던 현 정부의 정책은 일각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성장-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내 30대 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2007년 13조 9935억 원에서 지난해 20조 9500억 원으로 49.7% 늘어났지만 평균 종업원 수는 같은 기간 1만 5315명→1만 6344명으로 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가 최근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3%가 '대기업 위주 고용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상태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용 여력 증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스매칭을 해소해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 확충은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인재들이 겪는 구직난과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점점을 찾으면 일자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새로 직원을 많이 뽑는 중소기업들에 파격적인 법인세나 상속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노조도 '고통분담' 해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덜 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를 상당수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수의 근로자가 살인적인 강도로 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백수'인 지금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 전문가들은 야근과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된 현행 근무체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시간급의 50% 수준이다. 야간근로를 하면 50%가 추가로 붙는다. 시급 1만 원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로 야근까지 할 경우 시간당 2만 원을 받는다. 이를 시간당 4만 원, 8만 원까지 늘리면 쉽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에 없는 제도인 휴가 대체수당 등을 폐지하면 근로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미래전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초과근로를 근로기준법 규정(주당 40시간)에 맞춰 단속하면 5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총 주장처럼 한꺼번에 초과근로를 없앨 순 없지만 대형 제조업체만 바뀌도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당장 만들어진다. 근로시간 줄이기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생각하면 실행 이유는 충분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 단속에 적발된 424개 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총 3,179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 이

들 업체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7만 8728명의 4%에 이르는 규모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철폐해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 중 의료분야의 규제만 풀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최소 4만 8000개, 외국인까지 몰려드는 의료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하면 18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 실업자가 32만 4000명임을 감안하면 의료산업 규제개혁이 청년 실업자의 절반 이상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약사 등 이른바 힘 있는 전문직 집단의 로비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직 자격시험 합격자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시험 합격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심화되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생겨나게 된다. 변호사 수가 많은 미국에서는 법률자문 및 수입료가 저렴해지면서 개인변호사가 보편화됐다. 개인들은 손쉽게 소송대리가 아닌 법률자문, 계약체결, 공증 등 세세한 업무까지도 변호사에게 맡긴다. 중소기업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률 자문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일자리가 늘고, 전문직을 보조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등 부수 효과도 적지 않다.

공공 일자리 창출은 자제해야

세금을 써서 만드는 공공 일자리는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 분야 등 실수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급조한 공공 일자리는 단순히 세금을 퍼주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세금에 의존해 국가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OLP

변혁의 시대에 바람직한 공직자상

글 _ 이흥재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OLP 7기)



연말까지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라는 제목의 OLP저널에 실을 원고를 제출하라는 편집분과위원회의 부탁을 받고 수차례 고사하다가 결국 수락하고 말았다. 원래 글재주가 없는데다가 짧은 기간 안에 위와 같이 무거운 제목의 원고를 탈고한다는 것이 부담스러

웠지만 내년부터 OLC사무총장을 맡기로 한 터에 편집분과위원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란 어떤 것일까? 우선 ‘바람직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주관적이고, ‘공직자’라는 말도 그 범위가 다소 애매해 이를 주제로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구나 약 3년 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미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 필자가 이제 와서 바람직한 공직자상 운운하는 것이 뒷북을 치는 것 같아 좀 어색하기도 했다. 과거 필자가 스스로 보기에 그리 바람직한 공직자였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마당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쓴다는 것이 아직 공직에 계시는 여러 훌륭한 선배님들이나 동료, 후배들에게 주제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필자가 공직을 마친 후 일부 공직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서 과거 필자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소박하게나마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리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펜을 들었다.

첫째로 공직자는 자신이 국민의 공복(公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공직자들은 선거직이든 임명직이든 입으로는 자신이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지만 진정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선거직 공직자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허리를 굽히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임명직 공직자들 중에도 자신에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사에게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자신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러 온 민원인들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쥐꼬리만한 권한을 무기로 마치 상전처럼 행세하는 이가 있다. 과거 필자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종종 헌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검사에게 주어진 각종 권한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 각종 사건 관계인들에게 무례(?)하게 응대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행동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선배검사들의 엄중한 가르침 덕분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소나마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필자가 검사생활을 그만둘 때까지 검사라는 직책이 오로지 국

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했었는지는 자신이 없다. 공직자가 자신이 공복임을 망각하고, 국민에게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은 물론 공직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기 쉽다. 따라서 공직자는 항상 자신이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둘째로 공직자는 자신이 봉사해야 할 대상인 국민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언젠가 일반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리더십 요소로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꼽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물론 이 기사는 공직자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만 국민과의 소통능력은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는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소통의 본질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에 공감하는 것인데, 소통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는 자세다. 즉 공직자의 국민과의 소통은 능수능란한 화술이나 현란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겸손한 자세로 다가갈 때만 가능해진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세종이 왕위에 오른 후 정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신하들에게 한 말은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좌의정, 우의정과 이조, 병조의 당상관과 함께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변제량으로부터 이미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았고, 부왕 태종으로부터도 “정치의 대체(大體)를 안다”고 인정받았던 세종이 인물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는 신하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불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직자들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여야겠지만 소통의 기본이 겸손한 자세라는 사실도 명심했으면 좋겠다.

셋째로 공직자는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공직자들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답답해하

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는 정말 경계하여야 할 일이다. 세종은 즉위한 후 선왕들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경연(經筵)을 국정토론의 중심 장으로 만들었고, 재위기간 동안 총 1,898회를 실시하였다. 이는 태조의 23회, 정종의 36회, 태종의 80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세종의 국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연’이라는 장을 통하여 자신은 물론 신하들을 독서와 격렬한 토론으로 단련시키려는 즉, 능력 개발을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공직자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요즘 공직자들 중에도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다른 분야의 프로들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공직자들도 다른 분야의 프로들 이상으로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공직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필자가 감히 바람직한 공직자상 운운하면서 공직자들에게 위로는커녕 건방을 떠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필자가 자기 반성의 의미로 뉘두리를 늘어놓은 것이라 생각하고 널리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자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해야 하며, 공직자가 자신의 직책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OLP



기업 환경 -

규제강화보다 경영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글 _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OLP 10기)



2011년 한 해 동안 공정사회와 투명경영' 기치 아래 많은 규제가 강화됐다.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기업 활동 전반에 많은 지장이 예상된다. 올해 4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는 '회사와 이사 간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이 확대되었고, '회사기회유용금지'와 '준법지원인'이 신설되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가' 일감 물

아주기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①이사 ②주요주주(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법인, 개인) 및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기업사주) ③이사·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④이사·주요주주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⑤ ①~④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⑥ ①~④의 자가 ⑤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등과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특별결의(재적 이사의 2/3 이상)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특별결의를 받지 않고 실시한 거래는 추후에 무효처리가 되므로 거래 안정성에도 심대한 지장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우선 '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이 되는 자연인이 이사, 주요주주,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지나치게 넓어서 이사회 담당자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사'의 경우,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집행임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까지 포함되며, 판



례에 따라 이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도 특별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됨에 따라 승인대상 자연인이 매우 가변적이다. 이사, 집행임원, 주요주주 등이 결혼 등으로 친인척 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의도하지 않은 법률 위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승인대상이 되는 법인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위에 열거된 자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주요주주), 열거된 자연인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 및 자회사 등으로 광범위하다. 가족기업 간 거래 또는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국내기업의 특성상 거래건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대중소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모든 기업이 잦은 이사회 개최로 인해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승인대상 거래의 규모 및 특성을 한정하지 않아 1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비추보아도 맞지 않는다. 특히 사전 승인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된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은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기회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경우 이사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기회를 유용한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하는 손해추정제도 조항을 도입했다. 게다가 특별승인을 한 경우라도 추후에 손해가 발생하면 승인한 이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비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기회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명확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진출이 금지된 업종인 경우에는 회사기회가 아니지만, 추후에 진출 금지가 풀리면 회사기회가 될 수 있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안건 중 추후에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회사기회를 유용했다고 의심하면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 결국 어떤 사업기회가 회사에 이익 또는 손해가 될지 미리 알 수 없어 사후적으로 성공한 사업이나 수익성이 좋은 경우만을 가지고 이를 사전적인 단계에서의 회사기회 유용이라고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사회에서 특별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충실의무를 지는 이사회가 '회사기회 제3자 제공거래'를 승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승인한 이사에 대해 손해추정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법 취지라면, 이러한 안건을 이사회가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설령, 회사기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경영 전략상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사외이사가 과반수이고 이사회 책임과 관련해 사외이사들이 보수적 의사결정을 하는 관행을 감안할 때 이사회에서 특별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회사기회 유용금지 승인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도 큰 문제다. 승인대상이 '이사'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집행 지시자와 집행임원까지 포함되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사'에 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내이사·사외이사와 '업무집행 지시자'(회사의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다수의 집행임원)를 포함하고 있어 숫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준법지원인 제도 역시 문제다. 12월 28일 입법 예고된 상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규모 3천억 원 이상 상장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자산 규모 3천억 원 이상일지라도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 금융회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상장기업의 23.4%인 391개사가 여기에 포함될 전망이다.



준법지원인은 개정 상법에서 명시한 변호사와 법
학교수 이외에 기업 법무팀 등 법률부서 근무자, 감
사, 준법감시인 경력자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내 법무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법학 석사 이상 학력과 사내 법률부서
5년 근무 이상 자격을 갖추면 된다. 하지만 법무사 등
법조 인접 직역 종사자와 외국법자문사는 제외했다.

금년도 경제가 지난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천억 원이상 대상기업의 약 50% 정도가 변호사
를 준법지원인을 신규 고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경제계, 학계, 법조계가 모여서 적용범위에 대해 각
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5천억 원 이상, 1천억 원 이상
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입법예고가 법조계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입법예
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되어 대상기업
기준이 상향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대
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족기업간 또는 계
열기업간에 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이들
기업간 거래 자체를 일감을 몰아주
는 증여 행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규
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
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
에 우려가 많이 된
다. 기존 상속
증여세

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에 시장가격과 30% 이상 차이 나게 거
래할 경우 증여로 보고 과세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가
격으로 거래를 할지라도 수혜기업의 전체 매출 중 가족기업이
나 계열기업의 비중이 높으면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과정에서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등
이라면서 위원성 시비까지 있었으나 국회를 통과했다.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법은 일감을 받는 수혜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 법인의 매출 중 일
감을 몰아 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세후 영업이익에 증
여세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1,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만, 이는 대기업에 한정해 추정된 것으로 보이며, 중소 중견기
업을 모두 포함하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금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대기업 때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
러면서도 기업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주문의 목소
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경
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옥죄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년도 경
제전망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매우 불확실하며 민관 경
제연구소에서 3%대를 전망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판에 오
히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 ·
정부 · 경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지속적인 협
의가 절실함을 느낀다.

특히 2012년 들어 대기업 총수들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
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약속했다. 어려움을 공격경
영으로 돌파한다'는 게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의 주요 화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기업은 이에 화답해 적극적인 투자로 국민 경
제를 살려나가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기
업의 경영환경 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

각된다. OLP



변혁의 시대 -

금융산업의 경영환경

글 _ 김홍익 신한은행 국민연금강남지점장(OLP 8기)
(아래 글은 필자가 속한 조직과는 관계없는 개인 견해임)



가시지 않는 위기의 그림자

2011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침체에 빠뜨린 유럽발 재정위기의 그림자는 2012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럽 공동체 스스로 해결책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실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게다가 만약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하강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또 한 번의 큰 위기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변수는 유럽발 재정 위기의 진정 가능성과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 그리고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등으로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해소된다면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2012년 국내 금융시장을 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러한 대외 위기 요인의 심각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하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꾸준히 감소시키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가계 부채 부실

화로 인한 개인 신용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또 다시 심각한 금융위기가 재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진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내 경기가 침체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외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IMF 외환위기나 서브프라임에 의한 리먼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위기가 우리 금융시장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빈번히 제시되고 있다.

2011년 국내 금융시장은 저축은행 사태로 큰 고비를 겪었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로비로까지 불뚝이 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상대적인 고금리에 이끌려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맡긴 서민들의 시름도 전해지면서 금융 당국 등 정부관련 부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부실 기관의 퇴출과 금융그룹의 인수 등이 진행되고 소비자 구제책도 마련되고 있지만, 자질은 없고 탐욕이 과한 경영자와 부실한 감독기능이 만들어낸 최악의 합작품이라는 낙인은 지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건설 경기와 분양시장의 극심한 침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저축은행 부실화와 이에 따른 타금융업종의 도미노 부실사태를 우려하는 시각

도 상존하고 있다. 2012년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이 금융권의 위기를 건드리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2012년의 국내 금융시장은 불행히도 2011년의 암울한 그림자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채 2012년 새해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 협력에 기초한 재정 위기 극복방안에 공감하고, 미국의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중국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위기상황은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게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도 제공할 것이라는 긍정적 희망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위기돌파의 두 가지 테마 : 건전성 확보와 신성장 미래 전략

최근의 두 차례 거대한 금융 위기를 극복해 온 국내 금융시장이 나름대로 내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아직 미약한 국내 금융시장은 아직 해외로부터의 위기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2012년 혹시 도래할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개인 신용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 통신과 가전 및 자동차 등의 일부 수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 악화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경기를 지탱하는 개인과 기업 두 부문 모두 신용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건전성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 심각성은 통계 수준을 벗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증가하고 있다.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국내 금융기관의 또 다른 화두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전개하는 것이다. 2011년 은행권을 중심으로 과당 경쟁

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경고가 있었는데, 퇴직연금 분야에서는 2011년 막판까지 업종과 기관을 불문하고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업종 내에서도 국내 경기의 장기간 침체에 의해 소위 자산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일정 규모의 자산을 확보하려는 경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의 장기 횡보로 투자 상품에 대한 매력이 약화되고 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의 숫자 또한 줄어들면서 투자부문에서의 생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이 업종을 초월해서 전개되고 금융기관이 노릴 수 있는 타겟 고객층이 줄어들면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미래 성장 전략과 신사업에 관한 고민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해외 시장 개척이나 금융기관간 합종연횡, 뉴비즈니스의 창출 등 미래 성장 전략과 신사업에 관한 모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금융그룹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도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이나 여신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저축은행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이처럼 구조조정의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니치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이외에도 금융기관간 다양한 미래 수종사업 발굴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금융그룹간 경쟁 격화

2011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은행이 규모 면에서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의 3강 구도를 4강 구도로 전환하면서 비슷비슷한 규모의 금융그룹간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 포트폴리오 상 우위에 있는 신한금융그룹을 타겟으로 국민, 우리, 하나 등의 금융그룹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고 비은행 부문의 규모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 방향을 잡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금융그룹간 경쟁 격화는 특히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측면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은행부문에서의 손익은 큰 격차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객관적 측면만이 아니라, 2012년 건전성 및 성장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은행부문의 현상을 고려할 때 선도 금융그룹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비은행 부문의 선전이 금융그룹의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은행 부문의 비중은 신한금융그룹이 타 금융그룹에 비해 총자산과 순이익 측면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은행 부문의 회사들이 선전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향후 타 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강화 노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캐시카우로 인식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업부문에서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카드사 부실을 경계하는 감독 당국의 제약이 강화되고 수수료 인하, 휴먼카드 자동 해지, 카드론 절차 변경 등 영업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하지만 작년 은행의 카드 부문을 분사시킨 국민금융그룹과 SK와 함께 하나 SK카드를 출범시킨 하나금융그룹은 기존의 1위인 신한카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통적 강자인 삼성카드와 신생 다크호스인 현대카드, 카드업계를 강화하는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카드업계는 경쟁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신한카드의 수성이나 새롭게 출범한 국민카드와 하나 SK카드의 선전이냐가 될 것이다.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금융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이루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금융그룹의 경쟁은 취약한 부문을 보완하는 방향을 전개될 것이다. 최근 동양생명, ING생명 등 중하위권 생보사를 인수하려는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려는 금융그룹간의 경쟁양상은 이미 촉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금융그룹간 경쟁은 특히 사업 포트폴리오

를 강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측면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 은행 부문에서의 손익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큰 격차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은행 부문에서의 선전이 금융그룹의 위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드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와 비사용카드의 해지, 체크카드 도입 강화 등 카드사의 손익에 치명적인 제도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는 카드사 이외의 비은행 부문에서 어느 금융그룹이 좋은 점수를 얻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금융거래

2011년 4월 전산망의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되어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과연 안전한 금융거래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18일 만에 완전복구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공기업인 금융기관의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 연이어 다수의 카드사에서 내부 직원을 통해 고객 정보가 유출되어 비밀리에 거래된 사실이 발각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음은 물론 과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개인 재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게 되었다.

또한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과 해킹을 통한 카드론 인출 등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당연히 여겨지던 “금융기관은 안전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크게 상처를 입었다. 소비자단체와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한 발 나아가 금융기관 스스로 안전망을 확고하게 구축하도록 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은 내부 전산망의 안정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 피싱과 해킹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골몰한 한 해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보이스 피싱 피해건수는 3천2백여 건 액수로는 73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떤 경로로든 연관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금융당국의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사기의 수법과 이용 장비 등이 고도화되면서 고객에게만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주의와 예방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킹을 통한 카드론 인출 사례가 발견되면서 카드론 신청 시 본인확인 의무절차를 반드시 통하도록 금융기관의 의무를 강화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이동용 스마트 기기를 통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금융거래의 안전망 확보는 향후 금융기관의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향후 안전한 전산망 구축, 고객 정보 유출 및 해킹에 대한 대비, 모바일 금융 거래의 안전망 확보 등에 금융기관의 투자는 규모가 확대되고 더욱 첨단화될 것이다. 2012년은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 “안전한 금융 거래”라는 요소가 “가깝고 친절하고 편리하다”는 요소로 대체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 강화

심화된 부의 양극화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된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로 촉발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경제 침체로 인한 실직인구의 증가, 일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실업의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실업 상태에 있는 계층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임금 직종으로 평가받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얼어붙은 실물 경제와 달리 2011년 사상 최대의 손익을 달성한 금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과거와 달리 냉랭하고 이를 인식한 금융기관들은 최대한 낮은 자세를 견

지하고 있다. 2011년 초 “따뜻한 금융”이라는 구호 아래 사회적 책임을 더욱 다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신한금융그룹을 필두로 국내 금융기관의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 왔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지원책은 물론 자활을 돕기 위한 특별 금융상품의 출시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수수료 문제로 비난을 받은 카드업계는 소규모 식당 및 동네 유통업체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여파는 타계층 및 타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2012년 손익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카드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방안들은 201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기관은 괄목 성장한 국내 경제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규모를 키우고 급속히 전개되는 모바일 및 스마트화에 대응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야 할 새로운 영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이 딛고 서 있는 국내 경제 환경 및 소비자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업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볼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떠밀려서 하기 보다는 스스로 사회적 공기로써 사회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부터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수수료 및 금리 혜택을 통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고졸 신입직원 채용 거래 기업 신입직원 지원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무를 더욱 강화하면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OLP

OLP SPECIAL

OLP SPECIAL

김종민 전 청와대 경제수석 초청

OLC 경제언론인회 조찬강연

정세용 내일신문 논설주간(OLP 2기)

OLC '2011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김필수 헤럴드미디어 기획조정실 차장(OLP 7기)

OLC 골프대회

이용웅 국민일보 산업부 부국장선임기자(OLP 7기)

주왕산에서 산행의 진수를 맛보다

김상민 매일경제신문 기업경영팀 부장(OLP 7기)

“이명박 정부, 구호만 있고 답이 없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초청 OLC 경제언론인회 조찬강연 _ 2011년 10월 12일 프레스센터

글 _ 정세용 내일신문 논설주간(OLP 27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72)은 2012년 새해 벽두에 화제의 인물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좌장' 격인 그는 한나라당 정강정책에서 보수' 라는 용어를 빼겠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모든 세력을 구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나라당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보이는 등 자신의 소신을 곳곳이 지켜나가고 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이 된 후 자신의 과거 전력을 거론하며 사퇴하라는 외부에 압박에 대해서도 “그걸 모르고 날 데리고 왔나, 그렇게 한다고 위축돼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다. 총선과 관련해 외교·안보 등은 별 의미가 없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논의하겠다. 다만 지금은 시급한 정책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민 피부에 닿는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좋은 정책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 쇄신을 한 뒤에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순서를 거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4월 총선은 추후도 생각이 없다”며 자신의 무욕의 소신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이처럼 뉴스의 인물이 될 것임을 미리 알았던 듯하다. 2011년 10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그를 초청해 ‘10.26 시장선거 이후 한국의 정치 지형’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당시 그의 말은 2012년 새해 벽두에 그대로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강연의 첫마디에 "이렇게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한탄했다. 공격의 대상은 정치권으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청년실업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초기에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기업프렌들리를 들고 나왔다가 그다음엔 친서민 실용, 그 다음엔 공정, 그러다 올해는 공생으로 변했다. 이 정부는 구호만 갖고(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수석은 2011년 말을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으로 언급하면서, 안철수 열풍에 대해 정치권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춘콘서트에도 참석한 바 있는 김 전 수석은 "양극화가 심화되는데도 기성 정당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대중들이 안철수에 열광하는 것"이라면서 "10·26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나타날 표심을 정치가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정치권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대표적 예로 최근의 복지논쟁을 들었다. 그는 정치권이 복지를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프레임으로만 다루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절대 안 된다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만값 등록금을 들고 나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전 수석은 다만, 안철수 교수에 대해선 "정직한 교수인

건 틀림없지만 정치가 쉽게 되는 게 아니다"면서 "정치를 하려면 자세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 전 수석은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이 소득세가 높은 나라가 아니다"면서 "감세로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재정적자가 양호하다면서 감세가 최고의 방법인 듯 얘기하지만, 정부 부채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감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자신의 경제철학을 피력했다.

김 전 수석의 당시 OLC 조찬강연 내용을 3개월이 지난 2012년 1월에 되새겨봐도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다. 그만큼의 내공이 쌓여 있으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모셔 간 것으로 느껴진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중앙고와 한국외국어대 독어과를 나온 후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3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1,12,14,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노태우 정부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건국대 석좌교수,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현) 등을 거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조찬 강연에는 김병희 OLC 회장, 박기홍·홍성열 명예회장, 전성훈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남성일, 박정수 서강대 교수 등 80여 명의 원우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OLP

OLC '2011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성황리 개최

글 _ 김필수 헤럴드미디어 기획조정실 차장(OLP 7기)



사단법인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의 2011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2011년 12월8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OLC는 서강대 경제대학원 '오피니언리더스프로그램(OLP)'을 이수한 중견 언론인, 공무원, 법조인, 기업체 홍보 담당 임직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등의 친목모임이다.

이날 저녁 6시30분 이민성(9기, ㈜성우에드컴 대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진념 고문, 남성일 자문위원, 이한식 자문위원, 전성훈 경제대학원장 등 서강대 교수진과 OLC집행부 임원진 및 동문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경영, 언론, 홍보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OLC 대상' 시상과 OLC를 새로 이끌게 될 신입회장단 취임이었다.

2011 OLC Awards & Year End Party





| 36 |

OLP JOURNAL Vol.13

동할 예정이다. 언론분과 고문을 맡고 있는 정 실장은 “20여년을 글만 써오고 있는데, 갈수록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물며 실 물경제에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성과를 내는 (기업인 등) 여러분들은 더할 것”이라는 말로 고 마음을 표실했다. 김 전무는 “큰 상을 주신 학교 관계자 분들과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앞으로 저의 공 적조서 첫 줄에는 OLC언론대상이 적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전무는 “마 침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뜻 깊은 선물을 받았다”고 고마워했다.

한편 서면으로 대체된 결산보고에 따르면 2011년에 수입은 전기이월 9194만원, 찬조금 6799만원, 광고료 1721만원, 자치회 가입비(14 기) 2000만원, 기타수익 155만원 등 총 1억9869 만원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OLP저널 발간, 골 프대회, 송년모임, 경제기자회 초청세미나 등의 사업에 총 1억2776만원이 지출됐다. 이날 결산 보고는 감사를 맡고 있는 김영갑 서광법률사무 소 대표(1기)의 엄정하게 집행됐다'는 보고와 함 께 모든 원우들의 박수로 추인을 받았다.

OLC를 이끌 신임회장에는 김병희(7기) (주) 희성&H 회장이 취임했다. 또 수석부회장에는 장재진(8기) 회장이, 사무총장에는 이홍재(7기)



올해로 4회째를 맞은 OLC 대상 시상에서 경영 부 문 대상은 장재진(8기) (주)오리엔트바이오 회장이, 언론 부문 대상은 정석구(6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이, 홍보 부문 대상은 김범호(5기) SPC그룹 전무가 각각 수상했다.

장재진 회장은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 드린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경영에 더욱 매진하겠 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 회장은 2012년부터 수석 부회장으로 보임돼 OLC 원우들을 이끄는 주역으로 활





이날 경품행사를 위해 홍성열(3기) (주마리오 회장)이 찬조금 1000만원과 5만원권 마리오아웃렛 상품권 20매를, 김병희 회장이 찬조금 1000만원과 태반크림화장품세트 200개를, 박기홍 회장이 찬조금 1000만원을 내놓았다. 또 문승동(4기) (주엠플러스자산운용 대표)가 텀블러 및 커피세트 10개를, 강현숙(14기) (주에스테라코 대표)가 기능성 한방삼푸세트 5개를 협찬했다. 이와 함께 각 기수별 회장도 각각 100만원씩의 찬조금을 내놓았다.

행운권 추첨 행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식으로 행운의 주인공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밤 10시30분께 마무리됐으며, 이후에는 각 기수별로 개별모임 및 사진촬영 등을 진행하며 2012년 만남을 기약했다. 2012년 모임은 12월6일(서울 힐튼호텔)로 예정돼 있다. **OLP**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가 선출됐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박기홍(4기, 한유그룹 회장) 전임회장 등에 감사를 표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동문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등산 활성화, 홈페이지 활용 극대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회장은 “권력(?)을 놓아 아쉽다”며 농담으로 웃음을 유도하면서도 “OLC를 이끌면서 원우들과 함께 매우 보람찬 나날을 보냈다. 앞으로 늘 OLC를 아끼고 지원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며 농담을 섞은 상태에서 OLC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축하케익 커팅과 건배제의를 끝으로 1부 행사를 끝낸 원우들은 맛있는 뷔페식 식사를 즐겼다.

만찬 후에는 색소폰 연주자 신유식씨와 부부가수 홍서범-조갑경 커플이 출연해 한껏 흥을 돋겼다.

또 전문MC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과 경품추첨이 진행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홍서범(53)-조갑경(44) 커플은 이제 중장년층에게 어필할 만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패션과 정제된 목소리로 자리를 빛내 원우들과 원우 가족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마지막 한 소절까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자신의 음을 쏟아낸 신유식 씨는 진정 예술을 하는 모습이 저런 것인가 라는 경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OLC 골프대회



글 _ 이용웅 국민일보 산업부 부국장선임기자(OLP 7기)





골퍼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념은 주사파'라고 한다. (오해는 없으시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주사파나 술을 일주일에 4번 마신다는 주사파가 아니라, '1주일에 4번 골프를 친다'는 의미의 주사파니까) 이러한 주사파는 대부분의 골퍼들에게 '한단지뭉' 일 뿐이다. 바쁜 일상에 얽매어 '주말 골퍼'로 개근상을 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주말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말골퍼들은 매주 '행복한 주말'을 꿈꾼다. 하지만 비싼 그린피, 꽉 막히는 교통, 재촉하는 캐디 등 점수를 까먹게 만드는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거기에 연습까지 게을리한 관계로 돈까지 잃고 나면 완전히 인상 구겨진다.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골프장을 찾았다가 귀가할 때는 앓아진 지갑으로 인해 울상인데, 그래도 집에서는 마눌님 눈치를 보느라 '오늘 돈 좀 땀어'라고 지갑을 여는 통 큰 모습을 보여야 한다.

OLC에게 이처럼 '골퍼들을 슬프게 하는 골프'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쁜 골프라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힘을 합쳐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을 테니까.

2011년 10월 28일 화성 동탄의 리베라CC에서 열린 제10회 OLC 골프대회는 '진정한 즐거움'만 있는 모임이었다. 따사로운 가을 햇볕이 잔디를 보듬는 가운데, 골프 하기에 최적의 날씨였다는 게 원우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여기에 주말이 아닌

주중(금요일)에 대회가 열렸으니, 바쁜 세상살이를 하루 재껴두고 나온 원우들의 즐거움은 배가됐다. (학창시절 수업 빼먹고 뒷동산으





로 놀러 가는 기분이었을까) 거기에 푸짐한 경품까지 곁들어졌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아예 없는 모습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이날 원우들의 점수는 한마디로 ‘판타스틱’ 자체였다. 자칭 ‘공 좀 친다’는 한 원우는 “내가 8오버를 쳤는데 동반자들과 비교해 평범한 골퍼에 불과했다. 감히 명함도 못 내밀었어”라며 혀를 내둘렀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영예의 우승은 원우들중 막내 격에 해당하는 14기의 김선규(80타-조정타수 70.8타) 원우가 차지했다. 기라성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드라이버를 부상



으로 받은 김 원우를 보며, 많은 원우들은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말을 실감했다. 메달리스트는 김효준(75타, 12기) 원우 몫으로 드라이버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동반 경기를 했던 원우의 말을 빌리면 ‘어찌된 게 공이 핀 쪽으로 빨리 날아가더라’라는 게 김 원우의 실력이었다.

준우승은 8기의 윤석구(90타) 원우, 3위는 14기의 최원준(76타)가 차지했다. 1기의 이옥원 원우는 76타로 동타를 기록하고도 조정타수에 밀려 4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상품은 3번 우드였다.

남성미를 뽐내는 롱기스트 부문에서는 2명의 수상자가 나와 퍼터를 쟁겨갔다. 남코스에서는 235미터를 날린 10기의 이철형 원우, 서코스에서는 230미터를 기록한 1기의 이종재 원우가 영예의 수상자였다. 특히 바짝 마른 몸매의 이철형 원우는 ‘골프는 장작 패듯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격



언을 되새겨주는 샷을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니어리스트는 이젠 OLC에서 ‘노땅(?)이자 대선배’ 라며 관록을 자랑하는 1기 원우들 차지였다. 남코스에서는 5.2미터를 기록한 이용식 원우, 서코스에는 3.2미터까지 붙인 이익수 원우가 수상자였다.

그밖에 기타상 흔히 ‘잡상’ 으로 불리는 다양한 명목의 상을 받은 원우들도 많았다. ‘잡상’ 이지만 그래도 빈손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두 싱글벙글이었다.

대파상에는 파를 14개나 잡은 5기 황희만 원우, 다버디상은 2개를 기록한 4기의 송상훈 원우, 다보기상은 12개를 기록한 9기의 박관호 원우(이중재 원우가 13개를 기록했으나 롱기스트상을 수상함)가 각각 차지했다. 전반 47, 후반 54로 들쭉날쭉한 2기의 정세용 원우는 파도상, 연속 8개의 보기를 기록한 8기의 전희준 원우는 줄보기상을 받았다. 행운상은 13기의

강경호 원우, 감투상은 서강대 박정수 교수, 매너상은 경제대 학원 전성훈 원장, 특별상은 홍일점은 12기의 윤영미 원우, 공로상은 ‘영원한 정신적 지주’ 진념 고문교수 몫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기홍 회장이 ‘금액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찬조금, 김병희 수석부회장이 300만 원, 홍성열 명예회장이 금일봉을 협찬했으며 각 기수 회장님들도 100만 원씩 찬조금을 내놨다. 장재진 부회장은 시계 5점, 이덕수 원우는 뮤지컬 로열석 10매를 제공했다.

박기홍 회장은? "OLC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하고 있다. 2011년 남은 기간 잘 보내고 송년행사에 많이 참석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12년부터 회장을 일하게 된 김병희 수석부회장은 “내년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달라. 열심히 하겠다”며 간략하지만 힘있게 인사말을 전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OLP**

주왕산에서 산행의 진수를 맛보다

周王山

글 _ 김상민 매일경제신문 기업경영팀 부장(OLP 7기)



“향긋한 풀꽃을 쫓아 갔다가 떨어지는 꽃잎을 따라 돌아왔다”

장사 경잠선사의 산놀이 문답이다. 봄기운이 완연할 때 원족(遠足, 소풍)을 즐긴 선사께서 제자가 어디를 다녀오셨느냐고 문자 내놓은 일성이다. 경잠선사는 중국 당나라시절 호남성 장사땅의 녹원사 주지였으며, 남천보원의 제자이다. 문장에 시정과 선취가 물씬 풍긴다. 이보다 아름다운 글을 짓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경잠선사의 표현을 빗대 가을철 주왕산 산행을 얘기해보는 게 어떨런지.

“만산홍엽(滿山紅葉)의 가을 정취를 쫓았다가 인향만리(人香萬里)의 정(情)을 듬뿍 담고 돌아왔다”고

OLC 산악회의 주왕산 산행은 지난해 10월29일 이뤄졌다. 잠실역 10번 출구에 오전 7시 출발하는 버스에 올라탄 일행은 총 25명.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곧 사라져갈 가을을 하루라도 더 붙잡고 싶은 마음들이 모였다고나 할까.

이경우 산악대장(OLC 4기) 등 주최측이 준비한 주먹밥을 들면서 버스로 간 시간은 무려 4시간30분. 청송이 이렇게 심심산골에 있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음을 느끼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빨갛게 익은 사과를 주렁주렁 보여주는 과수원과 그 너머에 펼쳐진 울긋불긋한 주왕산이 가까이 다가오자 지루함은 단번에 날아가버렸다. 어린시절 소풍을 갈 때 느꼈던 설렘이 생겨났다.

산악회 일행이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주산지(注山池). 청송군 부동면 이전에 있는 저수지로 조선 숙종때인 1720년에 쌓기 시작하여 경종때인 1721년 완공됐다고 쓰여 있다. 길이 100미터에 너비 50미터, 수심 7.8미터에 불과한 조그만 연못에 불과하다.

크기로는 보잘것 없는 주산지가 유명해진 것은 주변 풍광과 그 곳에서 살고있는 왕버들 때문이다. 호수면을 중심으로 산위에도 물위에도 온통 단풍이 물들어 있으니 온 마음이 저절로 가을색으로 칠해지고, 물에 잠겨서도 곳곳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왕버들의 신비로움 앞에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수 밖에.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인 이곳의 모든 아름다움을 스쳐가는 행인들이 찰나의 사진'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모습이 우습기만 할 뿐이었다.

미국 인디언인 수우족 추장이 했다는 얘기가 문득 생각났다. 그는 백인들이 수도 워싱턴의 미술관에 놓인 그림을 보고 천재의 작품이며 훌륭한 예술품'이라고 하자 "얼굴 흰 사람들의 철학은 참 모르겠다. 숲을 베어버리고, 대지의 가슴을 파헤치며, 은빛 냇강을 더러운 시궁창으로 만들었다. 신의 그림이라 할 수 있는 자연을 무자비할 정도로 파괴한다. 그러면서 잔뜩 물감을 발라 종이에 그려놓고 걸작이라고 자화자찬한다. 자연은 완성된 아름다움인 것을"이라고 했다한다.

산책하는 기분으로 버스에 돌아오니 신동욱 산악회장(OLC 5기)가 마련한 청송 사과가 일행을 반겨준다. 향긋한 사과향과 달콤한 과즙을 마주하니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음을 잊을 정도다.

버스는 사과 과수원을 잠시 감상하면서 상의 주차장으로 달린다. 내리니 온통 인산인해다.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려는 현대인들이 모두 이 곳으로 몰려왔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시계를 보니 오후 1시를 넘고 있다.

본격적인 산행을 할 주왕산(720.6미터)은 태백산맥의 지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 청송-영덕군에 걸쳐 있다. 1976년3월30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지정면적만

107.425km²(3200만평)에 이른다.

가파르지 않은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니 신라 문무왕 12년(672년)에 창건했다는 대전사가 반겨준다. 계곡을 물들인 단풍과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올라가니 앞으로 넘어질 듯 솟아오른 급수대, 청학과 백학이 살았다는 학소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1폭포. 맑은 물이 가슴속에 담긴 속세의 먼지와 번뇌를 모두 쓸어가는 느낌이다.

걸음을 재촉해 더 올라가니 갈림길이 나온다. 왼쪽으로 제3폭포가 있지만 시간상 제약으로 후일을 약속하고 오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랬더니 오고가는 사람들의 일방통행만이 가능한 길이 나오고 잠시 후 제2 폭포가 눈앞에 나타났다. 조그마한 물줄기였다. 어, 이게 아닌데'라고 조금 더 살펴보니 윗쪽에 폭포가 또 있는 게 아닌가. 제2폭포가 아니라 2단폭포'였던 셈이다. 모두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막걸리를 한 잔 하니 신선놀음이 따로 없었다. 이경우 산악대장이 "3시까지 내려오세요"라고 했는데 막걸리에 취하고 가을 풍광에 취해 이를 기억하는 일행들은 거의 없는 듯 했다. 청량한 가을 공기를 마시며 웃고 떠들다가 내려와 도중에 파전에 막걸리 1잔까지 얼른 걸치고 돌아오니 어언 3시40분. 예정시간을 훌쩍 넘겼다.

모두들 주왕산의 아름다움에 탄복하고 버스에 올라타 강구항을 향하는 데 길지 않은 산행도 피곤한 듯 일행들이 모두 꿈나라로 향했다. 강구항에 다 왔습니'라는 얘기를 듣고 눈을 뜨니 동해안이 멀리 펼쳐져 있다. 산바람에 바닷바람까지 맞으니 더 이상 바랄게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즐거운 저녁 시간. 강구항에서 유명한 대게와 홍게를 안주삼아 한잔씩 기울이니 어느덧 정신이 몽롱해온다. 맛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니 선가에 전하는 두량족난복팔분(頭凉足暖 腹八分,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음식은 부족한듯 80%만)이라는 생활규범을 잊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출발지점인 잠실에 돌아온 시간은 밤 12시. 기나긴 여정이었고 피곤도 몰려왔지만 정이 쌓이고 가을 향기가 쌓인 OLC 산악회의 즐거운 가을 나들이였다. 올해가 또 기다려진다. OLP

당신이 계신 곳이 삼성화재 오피스

삼성화재의 스마트 시스템이 당신을 찾아 갑니다
맞춤 보험컨설팅에서 상품선택, 가입처리까지...
이제, 당신이 계신 바로 그 곳에서 삼성화재의
특별한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세요, 스마트하게!



이것이 스마트다! 삼성화재 스마트 시스템

모바일로 강화된 신뢰성 태블릿 PC를 통한 24시간 365일 one stop 고객지원
모바일로 강화된 전문성 상담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1:1 맞춤 보험 컨설팅
모바일로 강화된 편의성 가입은 물론 사고처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까지 바로



보험가입 신청/상담 **평일 09시~1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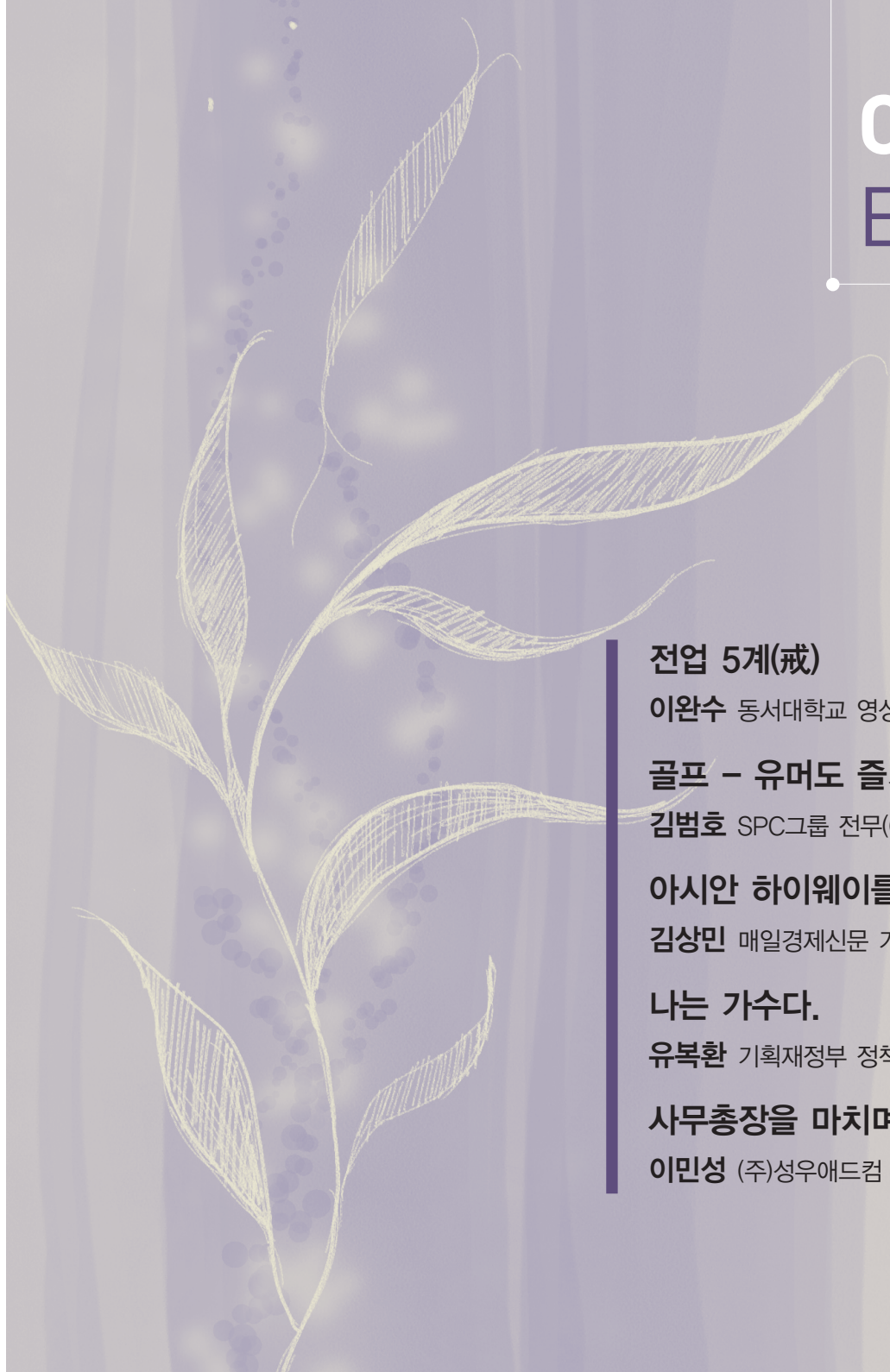
1588-3339
samsungfire.com

삼성화재 인터넷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친절한 보험료 안내와 더불어 계산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think**NEXT**

삼성화재

SAMSUNG

A stylized, light-colored line drawing of a plant with several long, slender leaves and clusters of small, round berries or fruits. The plant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extending upwards and outwards. The background is a soft, textured purple with vertical stripes and scattered small, glowing dots.

OLP E.S.S.A.Y.

전업 5계(戒)

이완수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OLP 3기)

골프 - 유머도 즐기며 칩시다

김범호 SPC그룹 전무(OLP 5기)

아시안 하이웨이를 다녀와서

김상민 매일경제신문 기업경영팀 부장(OLP 7기)

나는 가수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OLP 11기)

사무총장을 마치며...

이민성 (주)성우애드컴 대표이사 (OLP 9기)

전업 5계(戒)



글 _ 이완수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OLP 3기)

직장을 옮기는 것은 요즘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는 경우는 드물다. 건강 수명이 길어지고,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이 줄어들면서 전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직장을 이것저것 옮기는 것이 더 이상 흠잡을 일도, 흠잡을 일도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모작 인생을 시작하는 일을 부러워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의 일터를 지키든,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조직에서 인정받는 일이다. 그러나 조직에서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전업을 하고도 제자리를 잡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본다. 그렇다고 성공하는 전업 필살기(必殺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 나름대로 깨달은 전업 성공기법 몇 가지를 OLC(오피니언 리더스 클럽) 원우들과 공유했으면 한다. 필자는 지금은 대학교수가 됐지만, 몇 해 전만 해도 하루하루 시간과 다투어야 했던 신문기자였다. 신문기자 하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음습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비판하는 직업 특성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다. 어디 가서 꼴릴 일도 없고, 취재과정에서 보고 들은 무용담을 들려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우쭐하는 기분마저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대학으로 직장을 바꾸면서 한 가지 명심했다. 지난 직장 일에 대해 절대 티를 내지 말자는 다짐이 그 하나이다. 필자는 평소 사석에서 자신이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떤 자리에 있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심지어 월급은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내심 못마땅했다. 이런 사람치고 새로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옛말에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필자가 내린 결론은 가능한 과거와의 거리 두기였다.

무엇보다 먼저 새로 시작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직책에 있었던, 어떤 성과를 냈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신문기자의 성과는 기사를 많이 쓰고, 특종기사를 많이 발굴하는 데 있겠지만 대학교수는 강의와 뛰어난 논문을 많이 생산해 낼 때 인정받는다. 대학에 몸담은 이상



논문을 쓰지 않고, 기자 시절 “이런 기사로 특종 했다”거나, “누구누구를 잘 안다”거나 하는 자량은 쓸모없는 이야기이다. 물론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둘째 전에 있었던 직장 사람들과는 될 수 있으면 만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좋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일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 정보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필자가 옛날 생각만 하고, 언론사 주변을 얼쩡거리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기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면, 새로운 직장인 대학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거나 때로는 주위의 눈총을 받았을지 모른다. 대신 필자는 대학에 오래 몸담은 선배 교수들과 자주 만나 그들의 연구방향, 관심사항, 교육내용 등을 전해 듣고자 애쓴다. 기자들 동기 모임이 있어도 그곳보다는 교수들의 학술모임이나 세미나에 가려고 하는 편이다. 물론 옛 직장동료를 잊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새로운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넓혀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는 전 직장과의 비교하지 말았으면 한다. 과거에 월급을 얼마 받았고, 판공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지금과 비교해 이야기해 보았자 다 쓸모없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은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외형적 조건만의 비교는 스트레스만 줄 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직장을 옮기는 일은 단순히 월급 등 근무조건이 어떠한가로 결정하는 문제이거나,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물론 직장에서의 임금이나 후생복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장의 좋고 나쁨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얼마나 평소 하고 싶은 일이었는지, 얼마나 오래 동안 일할 수 있는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일인 지...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봐야 한다.

넷째는 과거에 자신이 해 왔거나 잘했던 일을 지금의 일과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기사 쓰는 능력을 논문을 쓰는데 매우 요긴하게 활용한다. 기사나

논문 모두 글쓰기 작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오랜 시간 훈련된 글쓰기 능력이 독이성이 뛰어난 논문을 쓰는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 또 기사 논문 주제를 잡는데 기사 기획물 아이디어 훈련이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외국에서 유학을 다녀오고, 연구력이 뛰어난 학자들 가운데 논문주제를 찾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는 평소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 기자생활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니 얼마나 좋은가.

다섯째는 과거에 자신이 무슨 일을 했던, 겸손해야 한다. 과거에 설혹 남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내 자랑하지 말길 바란다. 겸손이 늘 미덕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일터로 옮긴 전직자들에게는 겸손이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만은 틀림없다. 새로운 일터에서는 군대식으로 이야기 하면 훈련병처럼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새로운 일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배운다. 과거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면 주위로부터 쓸데없는 경계심만 불러올 뿐 자신에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인격적으로도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대학에서 언론학을 가르치지만, 과거의 기자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기자의 언론과 교수의 언론학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언론을 잘 안다고 해서 언론학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 언론과 언론학을 구분하였다. 실제로 언론계에 오래 몸담았던 베테랑 기자가 뛰어난 논문을 쓰지 못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 필자 역시 언론학은 과거의 일이고, 언론학은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배우려고 노력한다.

이제 임진년 새해이다. 새해에 새 직장을 찾아 떠나는 OLC 원우들이 있을 것이다. 새 직장, 새 일에 대한 희망도 있겠지만, 새로운 등지에 잘 정착하는 일도 중요하다. ‘전직 5계명’이 새로운 직장에 닳을 올리는 OLC 원우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OLP**

골프 - 유머도 즐기며 칩시다



글 _ 김범호
SPC그룹 전무(OLP 571)



골프는 샷을 한 후 걷거나 쉬는 시간이 많다. 이때 동료들 간에 대화가 이어지고, 자리를 즐겁게 빛내는 존재로 유머가 등장한다. 특히 골프는 유머가 너무나 많아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다. 다음은 2012년 한 해 동안 OLP 원우들이 되새겼으면 하는 골프 유머들이다.

◆ 숫자로 보는 골프

일취월장 : 잘 친 어프로치가 장타보다 낫다. 연필 길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

이구동성 : 공을 두 번 쳐도 같은 성질로 간다. 멀리건 줘봐야 소용없다 (또는 이구도 잘 치면 동반자가 성질을 낸다.)

삼고초려 : 고수가 3명이면 한 명의 초보는 걱정이 많다.

사고무친 : 4명이 모두 고수이면 친구가 하나도 없다. 점수와 내기에 혈안이 돼서...

오비이락 : 오비가 나면 두 사람이 기뻐한다 (라스베가스의 경우)

◆ 타수로 본 골프

60대를 치면 나라를 먹여 살린다.

상금이 많으니까.. 최경주 선수처럼

70대를 치면 가정을 먹여 살린다.

돈 따서 애들 학비 보태는 사람도 있을지?

80대를 치면 골프장을 먹여 살린다.

싱글 할 거라고 골프장에 자주 가니까

90대를 치면 친구를 먹여 살린다.

돈내기해서 잃는 경우가 많아서

100대를 치면 골프공 회사를 먹여 살린다.

공을 많이 잃어버리니까..

◆ 구조조정 4단계

일, 명예퇴직 : 명씨와 예씨를 퇴직 시킨다.

이, 구조조정 : 구씨와 조씨를 조정한다.

삼, 권고사직 : 권씨와 고씨를 사직시킨다.

사, 정리해고 : 정씨와 이씨를 해고시킨다.

(여기에 성씨가 해당된다고 화내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유머니까. ㅋㅋ)

◆ 골프채의 한글화

골프채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 세종대왕의 진노를 사는 관계로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드라이버 : 왜 이리지? (다른 표현으로 가서 봅시다)

아이언 : 이상하네

어프로치 : 돌겠네

퍼터 : 어어~~어~(마지막은 높은 말로)

◆ 골프장에서 듣지 말아야 할 약어

집 씨 : 기브 받고도 굳이 치는 골퍼에게 ‘집어 씨XX야’

물 개 : 자기 공이 온 그린 된 것 보고도 자랑하려고 물어볼 때 ‘물론이지, 개XX야’

택 씨 : 그린에 훨씬 못 미치게 쳐놓고 올라갔냐고 물어볼 때? ‘택도 없다 씨XX야’

아가씨 : 플레이도 느린데 한도 끝도 없이 연습스윙만 할 때? ‘아직도 가라스윙이나, 씨XX야’

물안개 : 계속 캐디만 구박하며 거리, 바람 등을 물어볼 때 ‘물어보지 마, 안 가르쳐줘, 개XX야’

버 스 : OB가 났는데 계속 찾을 때? ‘버리고 가, 스X놈야’

오바마 : 퍼팅이 짧았는데도 ‘오케이 바라며 동반자 바라볼 때 오케이 바라지 말고 마크해’

장 미 : 퍼팅이 50센티미터도 안 남았는데 라이 물어볼 때 ‘장난하냐, 미친놈’

◆ 골퍼를 위한 치매 자가진단법

1. 초기 증세

- 그늘집에 모자를 놓고 나온다.
- 화장실의 남녀 구별을 하지 못한다.
- 라커 번호를 까먹는다.
- 타순을 잊어 먹는다.
- 몇 타 쳤는지, 퍼팅 몇 번 했는지 기억을 못 한다.
- 왼쪽 맞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퍼팅한다.
- 엉뚱한 깃대를 향해 샷을 날린다.
- 세컨드 샷을 다른 사람 공으로 한다.
- 다른 사람의 채를 꺼내 든다.
- 짧은 파3홀에서 드라이버를 꺼낸다.

2. 중기 증세

- 회원인데 비회원란에 이름을 쓴다.
- 그늘집에서 준 오리알을 달걀이라고 우긴다.
- 주중에 운동하면서 ‘주말 날씨 좋네’ 라고 말한다.
- 레이크힐스 다녀와서 레이크사이드 갔다 왔다고 우긴다. 아침에 나갈 때 동서울(현재 캐슬렉스) 남서울 서서울을 구분하지 못하고, 심지어 북서울CC도 있다고 얘기한다.
- 두발용이라고 쓰여진 것을 두 발에다 바른다.
- 헤어크림을 얼굴에 바른다.
- 다른 사람 팬티를 입고 나온다.
-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것을 보고, 가격이 얼마냐고 묻는다.

3. 말기증세

- 깃대를 들고 다른 홀로 이동한다
- 캐디 보고 ‘여보’ 라고 부르고,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를 ‘언니’ 라고 부른다. (엄청 두들겨 맞는다)
- 손에 공을 들고서 캐디에게 공 달라고 한다.
- 카트 타고 가면서 라디오 틀어달라고 얘기한다.
- 병치샷 후에 골프채는 놔두고 고무래를 들고 나온다.
- 다른 단체팀 행사장에 가서 박수를 친다.
- 목욕탕에서 그날 동반자보고 ”오랜만입니다. 다음에 운동 한번 하세요”라고 인사한다.

◆ 아내와 골프

아내와 골프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최소 100번 이상을 굿샷이라고 큰소리로 외쳐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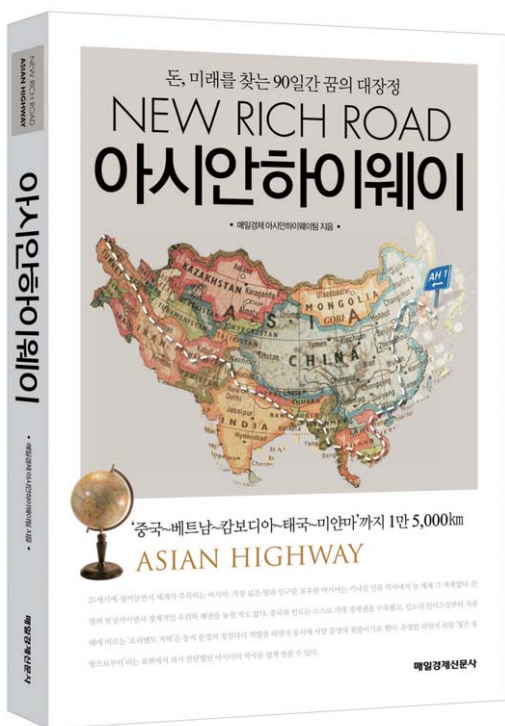
(그래도 외칩시다. 일단 돈도 들지 않고, 뭇보이면 노숙자 신세되니...) OLP



아시안 하이웨이를 다녀와서



글 _ 김상민
매일경제신문 기업경영팀 부장(OLP 7기)



2011년은 평생 잊지 못할 한 해로 기억될듯하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아시아대륙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90일간에 걸쳐 횡단했기 때문이다. 3개월의 여정 동안 들른 국가는 총 10개국. 일정은 아시안하이웨이 1번 도로(AH1)가 통과하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태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파키스탄~이란~터키로 이어졌다.

이렇게 긴 일정으로 아시아를 횡단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경제신문이 기획한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AH) 대장정의 취재팀장으로 활동한 덕분이다. 세계의 성장엔진인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미래이자, 부(富)의 미래'임을 인식, 길을 통해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다'는 취지로 구축된 AH를 달리면서 아시아의 꿈, 비전, 미래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필자는 AH대장정의 아이디어를 내고, 모든 일정과 취재 아이템을 기획하고, 전 현장을 직접 누볐다)

전체 길을 자동차로 달려본 결과 길은 삶이었다. 길을 통해 사람들은 움직이고 만나며 생활을 꾸려갔던 것. 필자가 경험한 길 가운데 넓고 평탄한 길은 부의 상징이었으며, 좁고 울



통불통한 길은 가난의 표현이었다.

아시안하이웨이 대장정의 출발 시점은 2011년 4월 11일. AH1은 한국에서 경부고속도로가 포함되는 데, 판문점을 통과해 평양을 거쳐 중국 단둥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북한 땅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단둥으로 건너갔다. 북녘땅을 갈 수 없으므로 배 위에서나마 북한 땅을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단둥에서 압록강철교를 바라보며 일정을 시작한 후 50일 동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 5개국을 달렸다. 거친 주요 도시는 선양 베이징 정저우 우한 광저우 하노이 호치민 프놈펜 방콕 양곤 등이다. 움직인 거리는 취재 경로까지 모두 합치면 약 1만 5000km였다.

중국에서는 △압록강에 위치한 북한의 방산마을 △중국 최고위층의 막후 정치가 펼쳐지는 베이다이허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마이카족 △세계 밀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저우의 식량거래소 △서울 못지않은 창사의

밤거리 풍경 △중국인들로 바글거리는 마오쩌둥 생가 △광저우의 무역박람회 등이 기억에 떠오른다. ‘세계 2강’으로 꼽히는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대대적인 고속도로를 닦은 덕분에 단둥부터 베트남 국경까지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가 기본이었다.

베트남에서는 △붉은 물결의 홍강 △광응라이성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공장 △나짱의 아름다운 해변 △호치민의 신도시 푸미홍의 모습 등이 인상에 남았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호치민을 잇는 1816km의 길이 왕복 2차선에 불과했고 그나마 포장 상태도 좋지 않아 평균 시속 40km를 내기가 힘들었다.

캄보디아에서는 △도도히 흐르는 메콩의 모습 △톤레삽 호수에 위치한 콤포롱 마을의 수순한 어린이들 △매미와 메뚜기튀김의 맛, 태국에서는 △방콕 카오산로드의 외국인 물결 △아유타야의 목이 잘린 불상 △미얀마 국경에서 고무튜브를 타고 돈을 벌러 태국으로 건너오는 미얀마인들의 삶의 현장 등이 가슴에 남았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부분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외국 원조로 지어져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버간의 수천개에 달하는 파고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라시오의 시장 풍경 △아름다운 인레호수의 소수민족 등을 봤다. 군부 통치 50년의 폐쇄국가로서 국민소득이 1인당 500~600달러 나라답게 미얀마의 길은 험난했다.

필자는 하반기 일정을 2011년 9월25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시작했다. 자동차를 타고 거처간 나라는 5개국이었다. 2차 일정에는 방글라데시의 다카, 인도의 콜카타와 텔리, 파키스탄의 라호르 이슬라마바드 페샤와르, 이란의 테헤란과 테브리즈, 터키의 앙카라 이스탄불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 도착 지점은 불가리아로 이어지는 국경 관문인 카피쿨레였다. 총 40일 가량 걸린 2차 취재일정을 소화하며 움직인 거리는 약 1만2000km였다. 상반기까지 합치면 총 2만7000km를 달린 셈이다.

바글바글' 방글라데시는 좁은 국토에 1억6000만명이 사는 빈국이어서인지 길이 매우 비좁아 전진하기 힘들었

다. 오후 반나절 동안 무려 4시간이나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한 다카의 비좁은 도로, 월급 60달러 남짓 받고도 행복한 웃음을 짓는 봉제공장의 아가씨들이 기억에 남는다.

인도는 왕복4차선의 길이 많았으나 아직 제대로 된 고속도로는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콜카타에서 파키스탄과 인접한 암릿차르까지 무려 2000km 가까운 길이 모두 평지여서 필자를 놀라게 했다. 인상깊은 광경으로는 △콜카타 뉴마켓의 어마어마한 인파 △힌두교의 성지인 바라나시의 화장터 △아그라의 세계적 관광지 타지마할 △요가의 도시 리시케시에서 바라본 갠지스강 △시크교의 성지인 암릿차르의 황금사원 등이었다.

파키스탄은 일부 고속도로만 좋을 뿐 나머지 국도는 후진국답게 울퉁불퉁했다. 그럼에도 넓은 평원과 아름다운 문화유적이 많았다. △라호르에서 만난 단식하는 부처상 △계획도시 이슬라마바드의 아름다운 숲 △페샤와르에서 만난 충을 든 군인들 △아프카니스탄의 물건이 오가는 바라마켓과 거기서 맛본 아프칸 음식 푼' 등이 기억에 남는다.



이란은 산유국답게 널찍한 고속도로가 인상적이었다. 히잡을 둘러쓴 여성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열사의 나라라는 인식과 달리 수도인 테헤란부터 줄곧 눈 덮인 산을 마주쳐야 했다. 기억에 남는 곳으로는 △종교도시 콥의 차도르를 쓴 여인들 △테헤란의 교통체증 △눈보라가 치는 태브리즈에서 작은 카파도키아로 불리는 간도반 가는 길 등이 있었다.

터키는 탄탄한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와 경제 중심지인 이스탄불을 잇는 길은 왕복 6차선으로 시속 150km까지 속도를 내는 자동차들이 많았다. 취재팀이 거친 나라 중 유일하게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는 신흥강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 했다. 터키에서는 인상적인 곳이 참 많았는데 △노아의 방주가 닿았다는 아라랏산 △지진이 휩쓸고 간 반(Van) 시 △산에 자리잡은 도시인 미르딘에서 만난 터키 가족 △유프라테스강을 가로막은 아타튀르크댐 △세계적인 관광지 카파도키아 △이스탄불의 아름다운 보스포러스 해협과 성소피아

아 사원 등 유적 등이 그들이다.

한편 필자가 팀장을 맡은 아시안하이웨이 대장정'팀은 상반기 50일간의 대장정을 New Rich Road, 아시안 하이웨이란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 하반기 40일간의 일정은 아시안하이웨이 II'라는 제목의 책으로 2월말경 출간된다. **OLP**



나는 가수다.



글 _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OLP 1171)

LOTTE DUTY FREE
11th FAMILY 2011
CONCERT



내가 요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나는 가수다' 이다.

출연자 중에 윤도현 밴드와 박정현을 좋아했다.

그 윤도현과 박정현이 함께 콘서트를 한단다.

이승철, 신승훈과 함께 4명이 한 표를 구했다.

공연 당일 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랬다.

하루종일 바빴으나 저녁 시간에는 바라는 대로 아무 일이 안 생겼다.

사무실을 나와 공연장 입구에서

정확하게 공연 5분 전에 아내를 만났다.

180분 화끈한 무대였다.

각자 40분 정도씩 공연을 진행했다

'라이브의 황제'답게 첫무대를 이승철이

대단한 가창력으로 6곡을 부르며 멋지게 장식했다.

다음은 요정으로 자리매김한 박정현의 무대. 아름다웠다.

아직도 한국어 억양이 어색한 게 귀여웠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록밴드' YB (윤도현 밴드)가 나왔다.

윤도현은 목이 안 좋다며 늘 하는 불평을 했지만

앵콜을 두 곡이나 받으며 열창을 했다.

폭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신승훈이 나왔다.

발라드와 댄스곡을 5곡을 불렀다. 어깨춤이 나왔다.

공연을 보며 피가 뜨거워졌다.

전쟁 같은 세상, 행복으로 채워졌다.

군대에 간 아들도 생각났다.

옆자리에 일본사람들도 흥겨워한다.

저 사람들은 비행기값도 들었을 텐데.

값싸게 공연을 보는 기분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명품 가을이 깊어간다.

'나는 지금을 즐기는 나다' OLP

OLC 사무총장을 마치며...



글 _ 이민성
(주)성우애드컴 대표이사(OLP 9기)



2006년 가을, 평소 데킬라를 즐겨 마시던 8기 류현하 원우의 추천으로 OLC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술 취함 때문이었을까? 나를 OLP에 입학시키고 본인은 멕시코 지사장으로...

하여튼 인연을 만들어준 친구가 고맙다.

이십 대 후반 오로지 패기 하나로 시작하게 된 창업이었기에 옆 눈질할 겨를 없이 생존과 미래를 위해 살아왔던 나에게 OLC와의 인연은 새로운 세상이었고, 많은 배움과 성장을 만들어준 곳이었다.

막강 9기로서 간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원우들과의 만남과 사랑에 취해 3년을 지내오던 중, 16년의 충무로 생활을 접고 구로디지털단지로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 하필 OLC사무국이 있는 건물 같은 층이었다. 능력과 관련 없이 오로지 가장 가까운 곳에 근무한다는 명분으로 임명되어 4년이라는 시간을 사무차장을 거쳐 사무총장을 맡아왔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소임을 맡아 홍성열 회장님과 박기홍 회장님, 너무나도 훌륭하신 두 분의 회장님을 모시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던 건 내겐 한없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또한, 회장단 큰형님 강대원 1기 회장님을 비롯한 각 기수 회장님들과의 만남, 회장단 교류여행에서 보여주셨던 내리사랑. 각 기수 회장님들의 희생과 봉사야말로 OLC를 지탱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사무총장이라는 임무가 항상 부탁만 드리는 자리이다 보니 많은 원우님들과 각 기수 간사장님들에게 조금의 불편을 드렸던 것 같다. 하지만 OLC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였음에, 조금의 위안을 해본다.

각종 행사 준비를 한답시고 각 기수 간사장님들과 밤을 새워 소주잔 기울이며 나누었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다.

|

우리 OLC는 사회 각 분야의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이제 나도 한 원우로서
작은 밑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큰 과오 없이 중책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홍성열, 박기홍 명예회장님, 각 기수 회장님과 간사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강대학교 진념 고문 교수님과 전성훈 대학 원장님, 남성일 교수님 외 여러 교수님들 에게도 부족한 점 용서를 구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김병희 회장님과 이홍재 사무총장님의 건투를 기원 드리며 전임 문승동 사무총장님과 양병만 총장님, 이종재 전임 언론분과위원장님, 이의춘 전임 편집분과위원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사무국 김수지 씨에게도 땡큐~!

이제 15기가 수료함으로써 약 700여 명의 OLC멤버가 완성되었다. 언론과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홍보원우들과의 만남은 대한민국 최고·유일의 조화와 응집력을 만들고 있다.

우리 OLC는 사회 각 분야의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로

서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이제 나도 한 원우로서 작은 밑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OLC 파이팅!

그동안 OLC사무총장이라는 무게감에 소홀했던 회사와 가족에게 돌아가 이제 더욱 충실함으로 그동안의 부족함을 만회해 볼 생각이다.

받아만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OLP**

2012년 1월
전임 사무총장 이민성

OLC
NEWS



**OPINION
LEADERS CLUB**
SOGANG UNIVERSITY



OLC News 회원동정

OLP를 말한다

기수별 활동소식

* 1기

- 1기 노응기 원우 : 산업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 1기 이세정 원우 : 아시아경제 편집국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 1기 강호원 원우 : 세계일보 편집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 1기 이상철 원우 : 효성그룹 상부보에서 상무로 승진하셨습니다.
- 1기 김성홍 원우 : 삼성그룹 홍보실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 1기 김상영 원우 : 동아일보 이사대우로 선임되었습니다.
- 1기 이종재 원우 :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1기 이종재 원우 : 한국SR전략연구소(KOSRI)를 설립하셨습니다.
 - Adr.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1110호
 - Tel. 02) 3273 - 5341
- 1기 이세정 원우께서 아시아경제신문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 2기

2기 회장단 변동사항

- 회장 :** 김재중 원우(에스피치(주) 대표이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 간사장 :** 황재성 원우(동아일보)님께서 맹상호 간사장님과 함께 수고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철호 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2기 김철호 부회장 :** 1월19일 연세대 MBA경영인상(물류부분대상) 수상하셨습니다.
- 2기 정운갑 원우 :** 2010 한국방송기자 앵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 2기 이창민 원우 :** (주)파라다이스 상임이사로 영전하셨습니다.
- 2기 정운갑 원우 :** MBN 정치부장 겸 앵커 부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2기 조흥희 원우 :**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퇴직하시고 2011년 6월 20일부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Adr.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한국지식재산센터 14층
 - Tel. 02) 3404-0313
- 2기 김격수 간사장** 홍보마케팅 전문기업을 새로이 시작하셨습니다.
 - 기업명 : K2PR(케이스퀘어피알)
 - '김격수가 PR을 하면 두재품으로 잘한다' 라는 뜻
 - Adr.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25-1 인텔리지1 킨스타워 6층
 - Tel. 031)782-3731 - Fax. 031)782-3732

* 3기

3기 이재환 원우 : 푸르덴셜투자증권 강북지역 영업본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3기 홍성열 명예회장 : 서울상공회의소 금천구 상공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상공회 회장 이 · 취임식

- 일시: 2011.4.12. (화) 오후 18:99~20:00

- 장소 : 노보텔(독산동) 2층 신라홀

3기 구자관 부회장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수여하셨습니다.

- 일시 : 2011. 8. 17.(수) 오후 4시

- 장소 : 서강대학교 동문회관 2층

* 4기

4기 회장변경

김안석 원우 ➡ 문승동 원우

4기 김안석 부회장 : (주)DORE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4기 박홍신 원우 :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4기 문승동 운영이사 : (주)엠플러스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4기 황철규 원우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하셨습니다.

4기 박 형 원우께서 (주)엠플러스자산운용 운용2본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 5기

5기 최명수 원우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오피니언부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5기 김하성 원우 : 이투데이 편집국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5기 김영기 원우 :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성과'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전공분야:인사관리

5기 장영석 원우 : CJ홈쇼핑에서 CJ제일제당 마케팅팀 상무로 승진하셨습니다.

5기 김승동 원우께서 CBS 마케팅본부 상무로 승진하셨습니다.

* 6기

6기 손광영 원우 : (주)파루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6기 홍승일 원우 : 중앙일보 코리아 중앙데일리 편집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6기 정석구 원우 : 논설위원 실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6기 홍승일 원우 중앙데일리 부국장에서 중앙선데이 에디터로 영전하셨습니다.

* 7기

- 7기 이광희 원우 : 조선일보 산업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7기 최성호 원우 : 신한은행 월곡동 지점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7기 홍병기 원우 : JTBC방송 정책기획실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8기

- 8기 김홍익 원우 : 국민연금 강남지점장(신사동)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8기 이정재 원우 : 중앙일보 경제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8기 한동안 원우 : 신용보증기금 관리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8기 김홍준 원우 :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로 영전하셨습니다.
- 8기 장재진 부회장 :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과학기술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 일시 : 2011. 4. 14.(목) 오후 2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8기 최원목 원우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관리협력관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8기 박남진 원우 :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경영관리처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8기 장정욱 원우 : 우리금융지주 상무대우로 승진하셨습니다.
- 8기 이원철 원우 : 우리투자증권 그룹부장대우로 승진하셨습니다.
- 8기 김문권 원우 : 국토해양부 정책보좌관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9기

- 9기 허무호 원우 : 2011년 2월 MBC 방콕특파원으로 3년간 파견되었습니다.

* 10기

- 10기 한충섭 원우 : 신한생명 상무로 승진되었습니다.
- 10기 정길근 원우 : CJ(주) 홍보실 상무로 승진하셨습니다.
- 10기 박동석 원우 :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로 승진하셨습니다.
- 10기 김인원 원우 : 법무법인 설립기념식 및 출판기념회 (총선 민주당 서울 중구 출마예정)
 - 일시 : 2012년 1월 9일(월) 오후 6시30분
 - 장소 : 중구 PJ호텔 (구 풍전호텔) 4층 카라디움

* 11기

- 11기 류현성 원우 : 연합뉴스 경제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11기 류근원 원우 : CJ(주) 홍보실 상무로 승진하셨습니다.
 11기 정원교 원우 : 국민일보 베이징 특파원으로 내정되었습니다.
 11기 정재식 원우 : 신용보증기금 광화문 지점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11기 조진일 원우 : (주)온전한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사장 로 취임하셨습니다.
 11기 이익수 원우 : 세계일보 상무로 영전하셨습니다.
 11기 정재식 원우 : 신용보증기금본부 감사실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11기 이현상 원우 : JTBC 경제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 12기

- 12기 송의달 원우 : 조선일보 에드마케팅 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12기 정혜림 원우 : 삼성커뮤니케이션팀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12기 최현수 원우 : '제28회 최은희 여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일시 : 2011. 5. 18.(수) 오후 6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2기 이기동 원우께서 (주)미래에셋증권 이사로 승진하셨습니다.
 -Adr. 서울시 중구 수화동 67 미래에셋센터1 빌딩 이스트타워 18층

* 13기

- 13기 김충섭 원우 : 신용보증기금 강남지점 지점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13기 왕태욱 원우 : 신한은행 서부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13기 임석훈 원우께서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13기 이현주 원우께서 우리은행 송파영업부 본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Adr.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벤처타워 동관 2층
 -Tel. 02)403-3658

* 14기

- 14기 김선규 원우 : 외환은행 압구정 중앙지점 지점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14기 이귀영 원우 : YTN 보도제작국 국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OLP) 16기 입학안내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지원자격

- 경력 10년 이상의 중간언론인
- 공·사기업체의 임원, 간부
- 정부기관 고위 공무원
-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인사
- 법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2년 7월부터
- 장소 : 경제대학원 교학과
Opinion Leaders Program(K관 111호)

* 제15기 주요 학사일정 및 강의시간

- 입학식 : 2012년 9월
- 강의기간 : 2012년 9월 ~ 2013년 1월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OLP를 말한다

구도호 / OLP 15기 수석부회장 / (주)선풍토건 대표이사



최근의 화두는 SNS이다. SNS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온라인과 모바일이다. 웹지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얻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대세 속에서도 새로운 배움과 인연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니 바로 서강 OLP가 아닐까 한다. OLP의 특징은 언론인과 홍보인이 많다는

것이다. 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판단의 '쟁'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러 왔을까.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본 과정을 마쳐야 하는 생각을 했다. 급변하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본 과정을 듣는 나와 언론인과 홍보인, 기업인이 모두 똑 같구나 하는 생각은 첫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생겨났다.

OLP는 나에게 많은 것을 준 과정이다. 평소 특정 분야에만 몰입하던 나에게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게 해 준 것이며, 또한 각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미래 우리나라의 주춧돌이 될 동남들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자신의 위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그러한 와중에도 OLP 15기에 애정을 가지고 수업 참여뿐만 아니라 3교시, 아니 4, 5교시까지 참석하며 열의를 보여준 원우들이 고맙다.

우리는 오프라인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등 SNS의 인연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를 통해 15기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OLP 15기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여러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감명일 회장님과 15기 원우님들, 또한 남성일 지도교수님과 박정수 간사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영석 / OLP 15기 간사장 /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2011년 한 여름이었다. 지인으로부터 OLP를 소개 받게 되었다. 지인은 수준 높은 강의와 탄탄한 커리큘럼, 그리고 끈끈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OLP 과정에 대한 칭찬을 덧붙여 주었다. OLP!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다. OLP는 시의 적절한 강의 내용과 강사 섭외, 특별한 3교시, 각 조별 모임, 엄격한 학사관리로 인해 과정 낙오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 등을 운영하여 단기간에 원우간의 결속력을 제고하여 차별하고 독특한 문화를 경험케 해주는 곳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서강 캠퍼스에서 느꼈던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 다시 생각나고, 정확한 3교시 종료 시간이 생각날 때면, 15기 원우님들의 정다운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그 정겨운 얼굴들이 15기 과정 이후에도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며 '위해서'를 외쳐본다.

※ 자세한 사항은 경제대학원 교학과 Opinion Leaders Progra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705-8017
- 팩스 : 02)705-8018
- Homepage : www.olp.or.kr
- 주소 : (우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pinion Leaders Program

※ 사단법인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 사무국

- 전화 : 02)877-0789
-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4-31 2431빌딩 13층

신한은,

징검다리가 되어 사람에게로 가자
어려움을 건너게 하자.

꽃이 되어 사람에게로 가자
삶을 향기롭게 하자.

모닥불이 되어 사람에게로 가자
내일을 따뜻하게 하자.

늘 신한을 믿어준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신한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한이 다짐, 또 다짐합니다.

사람을 위한
세상을 위한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하는
따뜻한 금융

글로벌 챔피언B를 향한 KDB대우증권 더 큰 금융세상을 만들겠습니다

KDB금융그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KDB대우증권
남다른 열정과 뛰어난 실력으로 대한민국 금융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 증권업계 최고수준 신용등급 **AA+**로 상향 (2011년 11월, 한기평·한신평·나신평 기준)

※ KDB대우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개개인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미소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건 그 속에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면 언제나 활짝-
그 웃는 얼굴을 보면, 내일의 에너지가 보입니다
한화가 태양광에너지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아라!

지금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시대!

영어가 일상생활이 되게 하는 영자신문이 영어교육의 필수입니다.



영자신문으로 영어를 정복한다 ON·OFF Line English Newspaper!

국내 최초, 최대부수의 청소년 영자신문을 생활속으로!

"영어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2000년 국내 최초로 창간된 청소년 영자신문 THE teen TIMES의 창간정신입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투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영어 구사능력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어가 생활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타임즈를 읽으며 세상을 보듯 우리 자녀들이 매일 영자신문을 통해 세상을 볼수 있어야 영어가 생활속의 언어로서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어는 영어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THE teen TIMES의 신념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11년전,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방향을 예측하고 오직 한 걸만을 개척해 온 THE teen TIMES는 창간 이래 청소년 영자신문시장 구독율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THE teen TIMES를 구독해 온 수많은 청소년들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통합영어를 생활속에서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자신문 1년 구독이 자녀의 10년 미래를 바꿉니다.

학습용 영자신문의 특징

1. **영어가 가까워진다.** 딱딱한 교과서 지문을 벗어나 매주 재미있는 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읽기능력이 향상됩니다.
2. **독해능력이 빨라진다.** 어려운 단어는 기사 하단에 '워드팁'을 제공하여 직독직해가 가능하도록 편집합니다.
3. **배경지식이 많아진다.** 영어공부를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폭 넓은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4. **듣기능력이 향상된다.** 홈페이지 기사 내용의 고음질 원어민 음성파일을 Speed Listening으로 제공합니다.
5. **영문법에 정통해진다.** 주요 기사에 대한 전문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영어학습의 완성도를 높여 드립니다.
6. **쓰기능력이 높아진다.** 매년 유명 대학교의 후원으로 전국영어논술(영어독후감)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7. **영어가 즐거워진다.** 뉴스동영상 강의, 영어성경, 팝송영어, 듣기 평가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영어 수준별로 선택한다.** 틴·키즈·킨더 타임스등 수준별 영자신문으로 자연스럽게 쉽게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유·초·등
영자신문

THE Kinder TIMES
www.kindertimes.co.kr

어·린·이
영자신문

THE kids TIMES
www.kidstimes.net

청·소·년
영자신문

THE teen TIMES
www.teentimes.org

온라인영어
참사사이트

TIMES Writing
www.timeswriting.co.kr

외국인 1:1
전화영어

phone TIMES
www.phonetimes.co.kr

글로벌 리더
영자월간지

THE world TIMES
www.worldtimes.co.kr



컴퓨터와 업무에 시달리고, 자가 운전하는 아빠의 눈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는 눈



실 틈 없이 바쁜 일상에 지친 눈

현대인의 눈건강 약 토비콤 에스

혹사 당하는
현대인의 눈

하루 종일 일하고 운전해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눈에서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청년의 눈'
바쁜 업무에 지친 비즈니스맨의 눈까지!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현대인의 눈건강 약은 바로, 토비콤 에스입니다



시력감퇴, 시력장애 개선제- 토비콤 에스® (용법/용량) 1일 3회 1회 1캡셀 씹

이 약은, 블루베리 추출성분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망막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줍니다 | 시신경 전달물질 로돕신의 생성을 촉진시켜 야맹증, 시력감퇴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 레티놀과 비타민의 복합 배합으로 눈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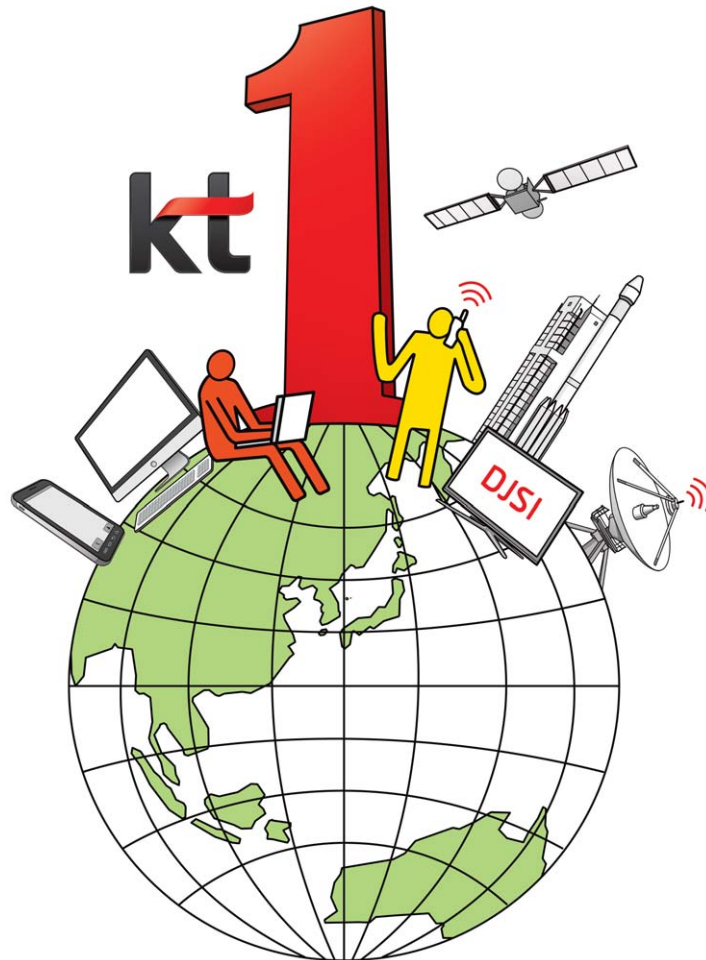
광고심의필 : 1110-14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kt, 다우존스(DJSI) 선정 통신분야 세계1위

글로벌 최고수준의 4G 네트워크 및 와이파이 인프라,
동반성장,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홈과 브랜드 파워 등
변화와 혁신을 향해 뛰어 온 kt가 DJSI 통신분야 세계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kt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내일을 향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터는
작은 헤드로 왔다갔다 -

LG프린터 마하젯은
슈퍼 와이드 헤드로 한방에~

프린터, 속도로 한판 붙자!



세계 최고속도를
직접 확인하세요!

슈퍼 와이드 헤드로 1초에 한장

기존 프린터보다 훨씬 더 길어진 A4 사이즈 슈퍼 와이드 헤드 60PPM 세계최고 컬러 인쇄 속도 (A4 컬러 데스크톱 프린터 기준)

최대 70% 저렴한 유지비용

노즐과 드럼 사이즈를 줄인 소량잉크 분사 방식으로 잉크 사용량 절감 소모성 부품을 없애, 추가비용 걱정 끝

LG 프린터 마하젯 보상판매

마하젯 구입후, 구형 프린터를 반납하시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1.11.14~2012.1.31 자세한 내용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를 참조하세요

구매상담: 서울(02)418-9494, 437-0882, 583-0610 경기(031)233-5668, 861-0107 강원(033)244-0141
충청(042)610-6900 전북(063)225-2572 전남(062)351-3435 경북(053)744-6387 경남 1670-6030



LPP6010N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컬러 프린터

LG 프린터 마하젯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종이 위에 새겨 품격 있는 간행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01 Contents Production

+ 02 Design

+ 03 Printing

+ 04 Marketing

IBA(The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2007 Best Speciality Ad Campaign (2007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광고/인쇄물) 수상
2007 Most Innovative Company in Asia (아시아 최고 혁신 기업) 선정
2008 Best Advertising/Editorial/Design Agency (최우수 광고, 편집 대행사)
2008 Best Creative Executive (최우수 크리에이티브 경영자)
2011 Executive of the year-Advertising, Marketing & Public Relations (최고의 광고, 마케팅 · 홍보기업)

IBA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분야 국제대회로 뉴욕 포스트지에서
“비즈니스분야 오스카상”이라고 격찬한 바 있다.



구로디지털단지 본사



파주출판단지 인쇄공장



OK! Printing

Challenge ; 행복에너지를 전하는 참기업, 한유



HANYU L&S

선박연료유 공급에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한유 L&S는 선박연료유 공급의 선진화를 도모하였으며 해상수송, 연료유 저유, 항공기연료유 공급, 통신 사업 등 주력사업에서 연관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HANYU ENERGY

윤활유(차량용 산업용, 선박용), 아스팔트, 석유제품 판매 사업으로 에너지 유통 전문화를 이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재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HANYU CHEMICAL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환경보호,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모토로 2002년 탄산가스 제조업체로 출범하여 인간과 환경의 풍요로운 조화를 추구하는 종합가스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유L&S

한유에너지

한유케미칼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679-30 한유빌딩 대표전화 (02)3460-6500